

이상걸 전교, 도서기증

이상걸 전 경주향교 전교(향교 총괄자)는 지난 7월 8일과 16일 두차례에 걸쳐 고서 각천 김선생 실기 등 2백 69종의 9백 50권과 목판 덕봉 선생 문집판목 95권을 경주캠 도서관(관장=이갑득·화학)에 기증했다.

이번에 기증한 도서는 다산 정약용 선생의 '과도교유'와 '창의록'을 비롯한 임진왜란시 경주지역의 상황과 활동했던 인물의 업적 등이 실린 책들이 대부분이며, 지역 향토사에 관한 서적들도 포함됐다.

또한 경제적 가치로 수천만원 상당에 해당돼 타 대학과 여러 출판사측에서도 섭외를 해왔으나 경주의 역사를 담은 책인만큼 후대에 물려줄 수 있는 소중한 자료가 되기를 바라는 의도에서 본교에 기증했다.

이런 이상걸씨의 조건없는 기증에 대해 학교측은 감사패를 증정했다. 기증된 도서는 참고도서실내 기존 사무실을 개조해 고서보관실에 둘 계획이다.

동우장학금 3천5백만원 지급

총동창회(회장=황명수·정치외교 53졸)는 지난 28일 교무회의실에서 열린 동우장학금 수여식에서 서울 18명, 광주 12명에 게 각 1백만원씩 지급하고 계산고시학사에 고시장학금 5백만원을 지원하는 등 총 3천5백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동우장학금은 동우장학회 기본자산 5억8천만원에 대한 수익금으로 매학기 30명의 재학생들에게 지급하는 것이다.

오는 11일까지 등록연장

경리과(과장=박환오)는 98학년도 2학기 등록을 오는 11일까지 연장한다. 재일·국민은행 전국 각 지점으로 납부할 학생은 △일반 재학생 △등록금 고지서에 '감면액'으로 반영된 학생이며, △장학금 지급 의뢰서를 소지한 학생 △복학생 △재입학생은 제일은행 교내 출장소로 납부해야 한다.

학생들은 반드시 지정 납부처에서 등록해야 하며, 소속 단과대 교학과에서 고지서를 재발급 받을 수 있다.

본사 경주캠 부주간 심규박 교수 임명



본사 경주 캠퍼스 부주간에 심규박(통계정보화) 교수가 지난 1일자로 임명됐다.

정보통신 우수시범학교로 선정

4년간 15억원 지원...정보매체센터 완공후 본격적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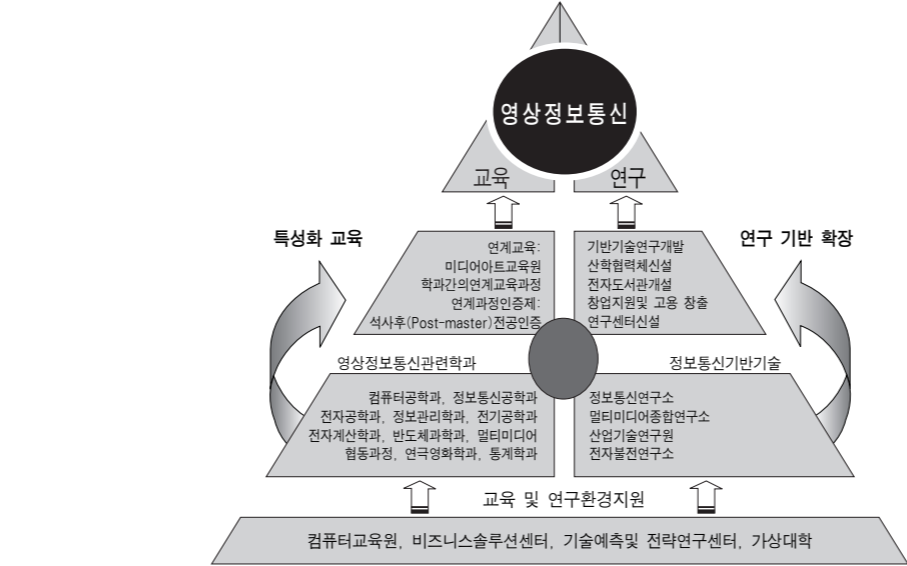
21세기를 이끌어갈 영상·정보통신분야의 미래가 밝아졌다. 정보통신연구관리단이 실시한 '98년도 정보통신 우수시범학교 지원사업'에서 본교가 우수시범학교로 선정되어 정부로부터 향후 4년간 15억원을 지원받게 되었다.

본교는 96년부터 영상·정보통신분야를 특성화시킬 것을 결정, 그동안 서울-경주간 고속정보통신망을 완성하였으며, 컴퓨터교육원을 설립하여 정보화교육의 기본환경을 조성하였다. 정보통신연구소, 멀티미디어종합연구소, 전자불전연구소를 설립해서 정보통신분야의 연구개발을 강화하는 한편 정보산업대학을 신설하여 정보통신분야의 효과적인 교육체제를 확립하는 동시에 지난 5월에는 '영상·정보통신분야

특성화 추진위원회'를 발족, 이 분야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해 왔다.

이번 우수시범학교 선정을 계기로 본교는 정보매체센터가 완공되는 내년 2월부터 영상·정보통신 특성화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우선 총비용 3백 50억여원에 달하는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속적인 학교의 자체 재원 및 국고 보조금의 집중적 투자, 교수 산학협동에 의한 연구비 수주, 수익사업, 등록금 수입 등을 통해 계획적으로 재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또한 정보매체센터를 중심으로 도서관 멀티미디어실 기자재 설치 및 시설공사, 전자도서관과 DB구축 등 첨단시설확보에 주력하고, 2001년까지 영상·정보통신분야의 교수들 전임교수 1백



영상·정보통신 특성화 프로그램

명, 겸임교수 50명 함께 1백 50명을 확보하기로 했다. 이와관련, 송석구 총장은 "이

를 계기로 영상·정보통신분야의 교육과 연구가 활성화 되기를 바란다"며 "21세기를 주도할 우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시설투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학사구조조정은 왜 말이 없는가

다양화·특성화비탕 주체간 논의 활성화 필요

교육·연구분야는 여기에서 머물 것인가.

교육부가 "앞으로 전국대학을 '연구중심 대학원대학과 교육중심 학부대학'으로 이원화 할 것"이라고 밝힘에 따라 서울대 등 몇몇 대학들이 "대학원 중심대학으로 가겠다"는 방침을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본교는 법과대학의 '법학전문대학원' 설립 추진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한 논의가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다.

지난 4일 열린 본교 구조조정 관련 설명회에서도 질의·응답시간에 나온 "설명회 90% 이상이 행정조직에 대한 이야기로 진행되었다"며 "학사구조조정이 선행된 후에 그에 따라 효율적인 행정조직개편을 하는 것이 순서에 맞다고 생각한다"는 발언은 "왜 대학의 구조에 대해서는 쉬쉬하느냐"라는 구성원들의 심층을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사과대의 한 학생은 "요즘 신문을 보면 이대학 저대학들이 대학원 중심대학을 추진하겠다는 등 교육개혁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학교는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하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한다.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물어 고쳐야 된다가 아니라 다른 대학을 따라가야 한다는 얘기는 아니다. 서울대가 추진하고 있는 '2+4 학제개편'이 비민주적인 졸속·밀실행정이라는 비판을 받으며 그 실행여부가 난항을 겪고 있는 등 여론수렴 없이 발표된 학제개편은 학내 구성원들로부터 상당한 반발을 야기하고 있다.

학사구조조정은 대학의 생존을 좌지우지할 중대 사안임을 인지할 때 주체간의 심각한 고민과 토론이 절실한 것이다.

그렇다면 대학가에서도 경쟁논리가 심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인가. 우선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건학이념을 바탕으로 한 다양화와 동시에 본교 나름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논의의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교수 학생을 비롯한 학교당국간의 의견 교류가 활발해져야 한다. 이와 함께 간과해서는 안될 것은 '교육과 연구를 통한 사회봉사'라는 대학본연의 자세일 것이다. 김홍환 기자

“기관업적 평가, 대학개혁의 첫 걸음”

4일 구조조정 설명회...팀제 등 행정조직 개편안 제시

본교의 경영·교육·재정 등 분야에 걸친 구조조정에 앞서 교직원들 대상으로 한 설명회가 지난 4일 서울캠 본관 중강당에서 교직원 1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번 설명회는 '비전 21세기 동국' 경영진단팀(팀장=송계동·LG경제연구원 수석 컨설턴트 이하 경영진단팀)이 제안한 △팀형 행정조직 개편 및 인력재 배치 △행정업무 효율화 △기관업적 평가/지원제도 △직원인사 재설계 등 5개 항목에 대한 송계동 팀장의 설명으로 진행됐다.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 박부권(교육학) 교육개혁 종합관리팀장

은 타대학의 학내 주체간의 논의 없는 개혁을 비판하면서 "우리 대학은 학내 구성원들이 서로 이해하는 분위기가 널리 퍼져있다"며 본교 구조조정의 비전을 밝게 예측했다. 그리고 각 주체들간 이해가 얽힌 문제인만큼 공개적 토론과정을 거쳐 다시 확인하는 작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송계동 팀장은 탄력적 업무 수행과 효율적 인력 운용을 위해 팀형태제와 서울캠 본부조직의 3층 3센터(교육처, 연구처, 사무처, 학생생활센터, 학생서비스센터, 정보관리센터)를 제안했다. 또한 다단계 인력계층 구조를 타파하고, 종래 수직적 업무수행에서 수평적으로 변화할 것

을 촉구했다.

그는 또한 기관업적 평가/지원제도에 있어서 "정당한 평가가 이뤄지지 않으면 진정한 대학개혁은 불가능"이라고 역설하면서 각 기관별 평가에 따른 차등지원의 중요성을 주장했다. 교직원 급여체계의 재설계와 관련해서는 기존 연공(年功)급여 등의 균등배분에서 직능급여 및 업적급여의 공정배분으로의 전환, 급여의 상향선과 하향선을 두는 것을 제안했다.

항목별 설명이 끝난 후 진행된 질의·응답시간에는 "대학의 학제구조개편이 먼저 이뤄져야 되는 것 아니냐?"는 등의 질문에 대해 송 팀장은 "행정구조조정은 경쟁의 틀을 만들어 주는 것"이며 "학사구조조정은 '평가'를 바탕으로 지급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또한 대학원 중심대학은 시기상조라며 내부체질 강화 후 경쟁분야에서 경쟁우위를 점해야 한다고 덧붙이는 것으로 설명회를 마쳤다.

한편, 경주캠 설명회는 내일(8일) 5시 소강당2에서 열리며 학내 여러 주체들과의 공청회가 서울캠은 오는 23일 3시 중강당에서, 경주캠은 오는 17일 5시 소강당2에서 진행된다.

연구부, 중점과제연구회 선발 지원

학제간 연구기반 조성 대외경쟁력 향상 목적

연구교류처(처장=박거덕·수학) 연구부는 지난 1일, 7개 중점과제연구회를 선발해(서울캠4, 경주캠3) 2백만원의 연구비를 지원했다.

7인 이상의 단과대 소속 학부(과)간 교수들로 구성된 중점과제연구회는 미래지향적이고 특성화된 연구과제를 개발·연구해 학제간 연구의 기반을 조성하고,

장기적으로 본교 대외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중점과제연구회는 지난 1일부터 연구를 시작, 내년 8월까지 1년 동안 활동하며, 연구가 마무리 되면 연구부에서 사업효과분석을 실시한다. 이 분석을 통해 사업효과가 우수한 경우 사업의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다.

보리소

용맹정진

박 경 준(불교대 불교학부)

우리들은 흔히 너무 부지런할지 않고 적당히 여유를 부리며 쉬엄쉬엄 살아가는 것이 불교적 미덕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조금만 잘 살피면 이러한 생각이 잘못임을 금방 알게 된다. 부처님은 한결같이 해태와 방일의 삶을 경계하고, 용맹정진의 삶을 살도록 타이르고 계시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대부분 열심히 일하기를 싫어한다. 더욱 때는 더더는 이유로 추울 때는 추다는 이유로, 시간이 이르면 아직 이르다는 핑계로 늦으면 너무 늦었다는 핑계로 일하기를 싫어한다. 게으른 사람들은 이렇게 갖은 핑계를 대고 변명을 하면서 해야 할 일은 많은데도 유체적 인일의 유혹을 떨치지 못하고, 기대거나 누워 빈둥빈둥 시간을 허비하기도 하며 달달한 잠 속에 빠져들기도 한다. 하지만 그러한 게으름의 결과는 여유와 즐거움이 아닌, 회한과 고통이기 일쑤다. 그래서 '대지도론'에서는 이 해태를 '독이 든 음식'에 비유한다. 독이 든 음식은 처음에는 그것이 좋을지라도 결국은 사람을 해치는 것처럼, 게으름은 온갖 지혜를 가리우고 공덕을 없애며 악을 키우기 때문이다. '법구경'은 방일을 '죽음에 이르는 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정법년처경'은 "어리석은 자는 방일을 즐기는 탓으로 항상 갖가지 고통을 받는다. 그러므로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한다면 마땅히 방일을 버려야 한다"고 설한다. 또한 '구사론'에서는 해태와 방일을 '대번뇌지법(大煩惱地法)'에 포함시키고 있는데, 이것은 해태와 방일이 번뇌를 발생시키는 큰 원인이 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부처님은 어느날 제자 아난과 함께 길을 가고 계셨다. 저 멀리서 한 양치기가 양과 못된 령은 불가늠"이라고 역설하면서 각 기관별 평가에 따른 차등지원의 중요성을 주장했다. 교직원 급여체계의 재설계와 관련해서는 기존 연공(年功)급여 등의 균등배분에서 직능급여 및 업적급여의 공정배분으로의 전환, 급여의 상향선과 하향선을 두는 것을 제안했다.

항목별 설명이 끝난 후 진행된 질의·응답시간에는 "대학의 학제구조개편이 먼저 이뤄져야 되는 것 아니냐?"는 등의 질문에 대해 송 팀장은 "행정구조조정은 경쟁의 틀을 만들어 주는 것"이며 "학사구조조정은 '평가'를 바탕으로 지급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또한 대학원 중심대학은 시기상조라며 내부체질 강화 후 경쟁분야에서 경쟁우위를 점해야 한다고 덧붙이는 것으로 설명회를 마쳤다. 한편, 경주캠 설명회는 내일(8일) 5시 소강당2에서 열리며 학내 여러 주체들과의 공청회가 서울캠은 오는 23일 3시 중강당에서, 경주캠은 오는 17일 5시 소강당2에서 진행된다.

고수동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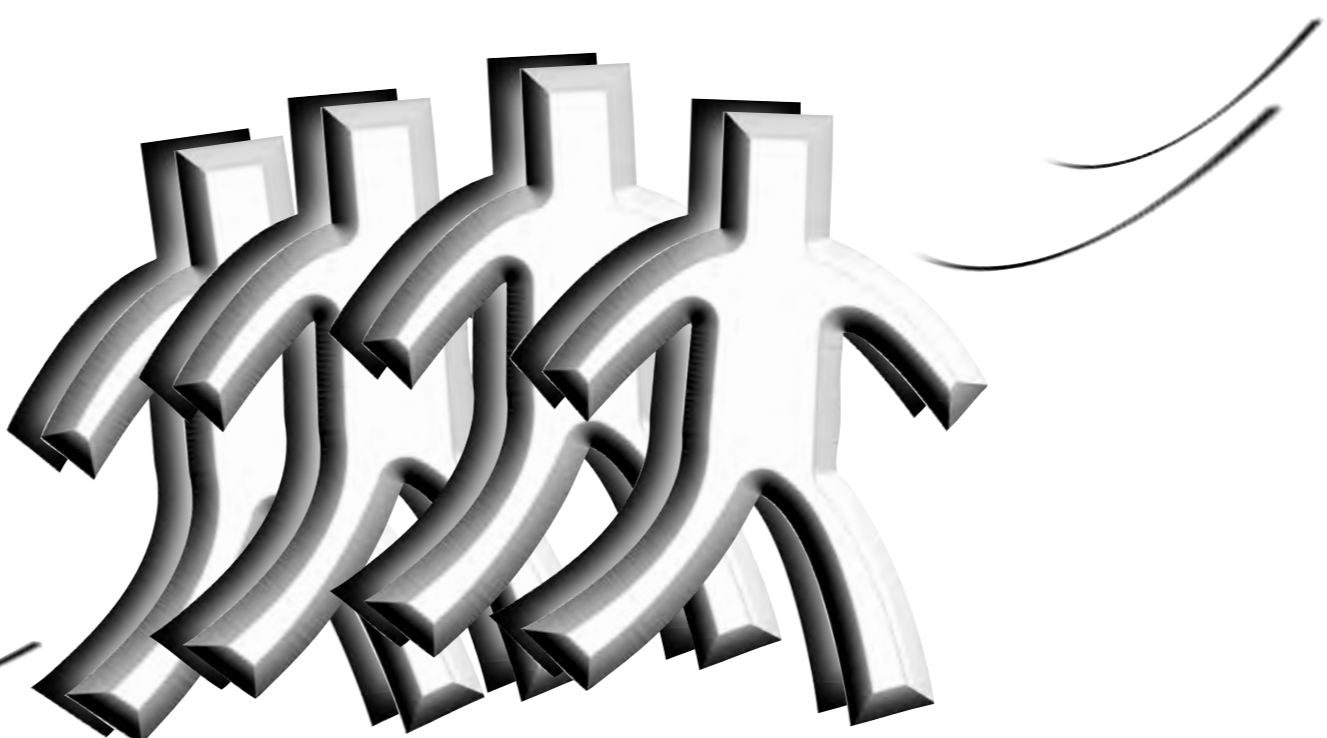
▲강문선(불교학), 전호연(불교학), 한태식(선학)=지난 3일부터 6일까지 일본 인도학 제49회 불교학회 참가

▲김삼규(건축공학)=지난달 28일부터 31일까지 국제학회 부회장 자격으로 중국 북경에서 열린 국제회의 참석

▲이상일(토목공학)=지난달 28일부터 4일까지 베를린 세계수공학회(ICME·98)에서 논문 발표

소속기자 모집광고

동아의 그림자를 찾습니다



- ▲ 모집인원 : 서울 및 경주캠퍼스 0명
- ▲ 응시자격 : 1학년 남·여 재학생
- ▲ 모집분야 : 취재·사진기자
- ▲ 제출서류 : 본사 소정양식 1부, 명함판 사진 (지원서는 본사 총무부에서 배부됨)
- ▲ 원서접수 : 98년 9월 7일부터 9월 17일(목) 오후 6시까지
- ▲ 전형방법 : ① 자기 소개서를 작성해 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제출 ② 면접
- ▲ 원서제출처 : 본사 총무부
- ▲ 면접일시 및 장소 : 서울캠·경주캠 98년 9월 17일(목) 오후 6시 본사 회의실
- ▲ 본사기자에게는 장학금과 활동비 및 해외 연수 등의 특전이 부여됨

학사행정 궁금증 '손 끝 하나로'

유니텔 동대동 학적과·취업과·장학과, 답변서비스

유니텔 '동국대학교 통신 동호회'(동대동)에 학적과·취업과·장학과에서 담당하는 사항에 관한 공지사항을 알려주고 궁금증이나 의문점을 상담해주는 방안이 개설돼 현재 실험 운영중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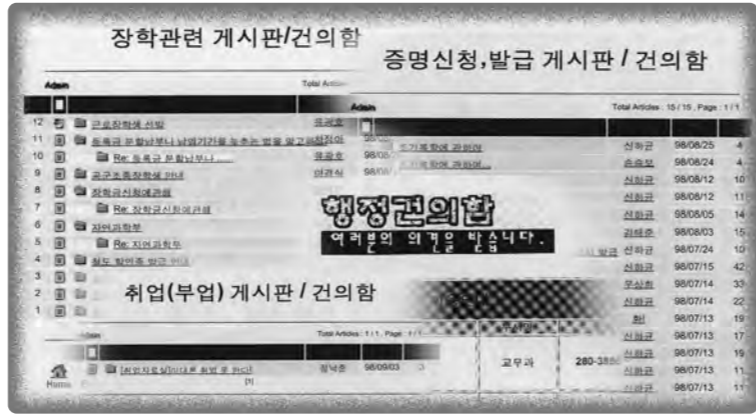
학적과 소식은 학사 전반에 대한 내용으로 △휴학 △복학 △재입학 △제적 △성적 △복수전공 △전과 등에 관련된 사항을 알려주고 있으며 학생들이 올린 질문에 답변, 공지사항이나 공식적 일정에 대해 알려주고 있다.

정보에 대해 다루며 4학년 뿐만 아니라 졸업한 동문들도 볼 수 있게 졸업동문 게시판에도 정보를 올리 고 있다.

장학과 소식은 △교내외 장학금 △사회봉사활동 △봉사관련사항 등을 다루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학적과 소식 담당자 신하균씨는 "학생들과 전화로 상담하다 발생하는 오해를 줄이기 위해 글로 표현하게 되었다"며 개설 동기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유니텔에 접속한 후 'GO DGU'를 입력해서 동대동으로



이동한 뒤 '정보의 샘'에 들어가면 접속이 가능하며 주소는 http://dgucc.dongguk.ac.kr/이다.

이동한 뒤 '정보의 샘'에 들어가면 접속이 가능하며 주소는 http://dgucc.dongguk.ac.kr/이다.

오는 10일 노조 출범식

8대 직원노조(위원장=백경선) 출범식 및 정기총회가 오는 10일 오전 11시 중강당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는 1, 2부로 나뉘어 진행되며 1부에는 7·8대 임원 이·취임식이, 2부에는 감사보고 및 결산 승인, 사업 계획 보고 및 예산승인, 규약 개정, 대학 단일노조 조직관련 찬반투표가 있을 예정이다.

졸준위, 정기총회 개최

개강을 맞아 졸업준비위원회(위원장=김기석·물리4 이하 졸준위)는 오는 10일 오후 6시 강의실에서 정기총회를 갖는다. 이날 총회에서는 1학기 사업 및 감사 결과를 보고하고, 취업주간, 졸업앨범 재촬영 등의 2학기 사업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다. 한편, 졸준위는 졸업앨범 재촬영을 위한 개인 프로필 확인작업을 다음주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도서관 열람시간 연장

2학기 개강에 따라 도서관(관장=임호일·독문학)은 오는 14일부터 열람 시간을 다시 기존의 체계로 연장한다.

각 실의 열람시간은 1층 멀티미디어실이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2층 과제도서실이 오전 9시부터 저녁 8시 30분, 불교학자료실이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 3층 참고정간실이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이다.

양심수 위한 하루주막

오는 12일 오후3시 다항관 학생식당에서

양심수 전원석방과 정치수배 해제를 위한 하루주막이 오는 12일 오후 3시에 다항관 학생식당에서 민족동국 양심수 수배자 대책위(위원장=황인구·영문4 이하 대책위) 주최로 열린다.

이종환(전산통계4) 아간강좌 총학생회장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조계사 농성단 지지 발언 △범민련 탄압 규탄 발언 △조계사

농성단 생활총화 및 발언 영상물 상영 △신바람, 천리마, 동아리지역 문제, 희망새, 꽃다지의 문제공연 △참연단체 대표 인사와 활동총화 및 발언 등의 내용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대책위측은 "준법서약서 철회와 부당한 정치수배 해제를 위해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물론 양심수와 수

배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자리가 될 것"이라고 이번 행사의 목적을 밝혔다.

신임교수회장단 확정

6기 교수회(회장=유덕기)생명자원경제학)는 지난 1일 업무인수를 하고 총무와 편집위원장을 임명하는 등 교수회장단을 확정지었다.

이로써 6기 교수회 회장단은 회장=유덕기(생명자원경제학) 교수, 부회장=김한(영문학) 교수, 총무=박상진(화학공학) 교수로 구성됐다. 한편, 교수회 감사에는 차수연(경영학) 교수, 편집위원장은 송일호(경제통상학) 교수가 결정됐다.

동연, 개강 맞이 한마당

'개강맞이 한마당'이 지난 4일 학생회관 1층 로비에서 동아리연합회(단장=박영민 건축4)주최로 분과별 하반기 계획, 학과개방사업계획 등의 보고발언과 환경미화원사발표 및 시상 순으로 진행되었다.

B.S.C. 오늘(7일) 개관

빠르고 신속한 정보 검색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동국관 B.S.C.(BUSINESS SOLUTION CENTER)가 오늘(7일) 개관한다.

B.S.C.는 정보 검색을 원하는 동국인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사이버 랜트 △강의실습실 △멀티미디어 강의실 △CASE 실습실 △광고 창작실 △FGI ROOM △세미나실 △정보 전략 회의실의 8개 공간으로 나누어 운영되며 공휴일에도 개방된다.



구름다리... 학술문화관과 동국관을 잇는 구름속 다리. 방죽공사로 다리가 생김에 따라 학내주체들의 다리가 편안해졌다. 남대철 기자

'법학전문대학원' 설립 박차

정원·교원확보 주력... 독립공간위해 모금운동 계획

법과대학(학장=연기영·법학)이 법과대학발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법학전문대학원' 설립 추진에 주력하고 있다.

김영삼 정부가 시도하려던 법조계의 반발로 법학 대학원 설립이 무산되었으나 현 정권이 들어서면 '법학전문대학원'이 확정되어 현재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에서 이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성균관대, 한양대 등 일부대학도 법학전문대학원설치에 따른 문제점과 대응방안을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추어 본교 법과대학도 정부의 법학전문대학원 추진에 따른 단기발령방안을 깊이있게 연구, 총장에게 결과를 보고 하는 등 교수들이 발 벗고 나섰다. 법학전문대학원 설립을 위해서는 △입학정원 증원 △교원충원 △독립공간 확보 등이 우선 해결되어야 하지만, 본교 법과대학은 독립된 공간이 없음을 물론 입학정원 80명, 전임교수 9명으로 상당히 열악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법대는 입학정원의

증원과 교원의 충원을 법학전문대학원 설립의 필수불가결한 요건으로 판단, 교육부의 비공식적 지침인 △입학정원 2백~3백명 △전임교원 20명 이상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학교측에서도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도서관·모의법정·연구소 등 독립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재계, 정계, 법조계 등의 동문들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모금운동을 계획하고 있다.

이와관련, 연기영 법과대학장은 "법대 자체의 자생력을 키움과 동시에 학교지원이 뒷받침된다면 3년에서 5년사이에 이를 수 있다고 본다"며 "2학기에는 분야별 기초연구 및 세부항목을 중심으로 고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학의 경쟁력과 질적수준의 강화를 물론 고도의 전문직업인 양성을 위한 법학전문대학원 설립은 앞으로 본교 법과대학의 존·폐여부를 결정한다해도 과언이 아님을 감안할 때 신중한 검토와 체계적인 방안이 시급하다. 김동환 기자

이전부터

A=3.4?

○...지난 학기 성적확인을 한 어떤 학생이 황당한 일을 겪었다고. 알고보니 그가 수강한 교양강좌에서 A를 받은 학생중 대부분이 지칭인 △입학정원 2백~3백명 △전임교원 20명 이상을 확보하기 때문이라는데.

이들이 교양강좌를 선택한 이유가 성적따기가 쉬워서인지, 아니면 정말로 전공 기초를 보충하기 위해서인지는 알 수 없는 노릇이고. 이에 피해 학생 한미더 "교양수업에도 정리해고제를 도입합시다"

선략

○...교수님의 IMF 수업방법 △구조조정=2시간 30분 연강으로 시간조정.

△정리해고=불만있는 사람은 자율적으로 해결바람.

이는 한시간짜리 강의의 비효율성을 덜기 위한 교수님의 방편이지만 다른 강의 시간과 맞물려 피해를 보는 학생이 있으니.

이에 정리해고 대상자가 돼버린 한 학생 왈, "수업안정 보장으로 IMF 극복하자!"

공중전사

○...학림관 5층에 설치된 공중전화는 전사용?

알아본즉 1층까지 내려가는 불편을 덜기 위해 설치된 공중전화는 고장으로 제 기능을 못하기 때문이라고.

심지어 전화기가 카드까지 집어삼키는 경우도 있어 많은 학생들이 분통을 터뜨린다고 하니.

이에 전화를 걸기 위해 다시 1층으로 내려가면 학생에게 들려오는 소리가 있으니 "미안한데 말이야, 내가 1층으로 옮겨요."

희피(?)투게더

○... "개강과 함께 휴강을?" 개강 하자마자 휴강을 실시한 강의가 있어 일부 학생들이 즐거워 한다는데.

알아본즉 모 교양수업이 교수님의 출장으로 인해 9월 말에 되어야 강의가 시작된다는 것.

그러나 이러한 연유에는 관심없는 학생들은 마냥 좋아하기만 하고, 교수님도 때때로 출장을 가셨으니.

이에 본 회전문대자 왈, "교수님 출장은 부에노스 아이레스(?)로, 학생·교수님 모두 해피 투게더(?)"

복수전공신청

- 지원서 접수기간 : 98. 9. 10(목)~9. 11(금)
- 접수처 : 교무처 학적과
- 지원자격
 - 가. 이번학기에 7학기 등록을 하고 99년 2월 조기졸업 신청자 및 99년 8월 졸업대상자로서,
 - 나. 전공과정 이수시 취득한 학점이 매학기 18학점 이상이고, 전학년 평점평균이 3.0이상 이어야 함. (단, 4학년 2학기는 제외)
- 제출서류 : 복수전공 이수지원서 및 성적증명서 각1부.
- 유의사항 : 복수전공자는 제1전공의 졸업요건을 충족했다 하더라도 학위를 수여 하지 않으며, 제2전공의 졸업요건이 충족되었을 때 학위 수여일자가 동일한 졸업증서를 동시에 수여함.

교 무 처 장

조기 졸업 신청

- 신청자격 :
 - ① 6학기 또는 7학기 등록을 필한 재학생으로서 (98-2학기 포함)
 - ② 취득학점이 급격히 수강신청학점을 포함하여 졸업기준학점 이상이어야 하고(겨울 계절학기 포함)
 - ③ 6학기 또는 7학기 누계 평점평균이 4.0이상(F학점 포함)이 될 수 있는 자로서
 - ④ 기타 졸업요건을 모두 이수할 수 있는 자.

단, 6학기 등록자는 '96년 입학자만 해당됨
- 신청기간 : 98. 9. 7.(월)~9. 9(수)
- 신청장소 : 각 대학 교학과
- 제출서류 : 조기졸업 신청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 유의사항 : 겨울 계절학기를 수강할 경우 조기졸업이 가능한 자도 신청가능

교 무 처 장

등록금 수납 안내

98학년도 2학기 학부 재학생 등록금을 다음과 같이 수납합니다.

- 수납기간 : 98년 8월 31일(월) ~ 9월 12일(토)
- 수납처 :

납부은행	대상 학생
제일·국민은행 전국 각 지점	1) 일반 재학생 2) 장학관계가 고지서 상에 "감면액"으로 반영이 된 학생
제일은행(교내) 동국대 출장소	1) 장학금 지급의뢰서를 소지한 학생 (장학금 지급의뢰서와 등록금 고지서를 동시에 제출, 그 차액만 등록금으로 납부) 2) 일반 복학신청기간 만료 후 복학한 학생 3) 재입학생 4) 학점등록생
- 등록금 납부 시 유의사항
 - 가. 등록금 고지서를 분실, 오손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나. 지정납부처에 납부하지 않을 시 무효로 학적이 상실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다. 부득이 등록금 고지서 재발급을 원하는 학생은 소속 대학 교학과에서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라.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 및 경주캠퍼스 경리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1) 서울 캠퍼스 경리과 : ☎ 02-260-3068~70
 - 2) 경주 캠퍼스 경리과 : ☎ 0561-770-2068~69

총 무 처

학복위 가을특강

- 가을특강 기간 : 98년 9월 21일~11월 6일
- 강의시작 : 21일(공개강의) : 21일~23일)
- 접수기간 : 98년 9월 14일~25일
- 접수처 : 구내서점
- 가격 : 20,000원
- 강의실 : 추후 공고
- 강의명
 - TOEIC : 안박사 TOEIC, SYSTEM TOEIC, LIVE TOEIC
 - TOEFL : 신경항 아카데미 TOEFL, 신경항 TOEFL TEST LISTENING : CULT ENGLISH
 - 제2외국어 : 초급 일본어

민족동국 제30대 총학생회
열네번째 학생복지위원회

언론개혁시민연대 출범과 활동

논단

언론개혁운동에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자

37개 언론 시민 사회 단체가 참여한 언론개혁 시민연대(상임 공동대표 김중배)가 지난 27일 프레젠테이션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창립대회를 갖고 대장정에 올랐다. 해방이후 최대규모의 언론운동단체인 연개연은 언론개혁을 지향하는 언론단체와 언론개혁의 필요성을 인식한 시민단체들이 언론개혁을 목표로 연대한 언론운동기구이다.

언론개혁운동은 크게 언론사 내부의 언론운동과 언론사 외부의 언론수용자운동으로 대별된다. 언론사 내부의 언론운동과 언론수용자운동은 나뉘지 않고 일정한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양대운동 모두 언론을 근본적으로 개혁시키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냈다. 언론운동은 자사이기주의로 변질되기 시작했고 수용자운동은 언론사의 내부개혁을 이끌어내지 못했다.

74년 유신독재정권에 맞서 일선기자들은 자유언론수호투쟁을 시작했다. 이들의 자유언론수호투쟁은 언론운동의 효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후 80년대후반 들어 일선기자들은 노조를 결성해 편집권 독립 투쟁을 벌였다. 파업에까지 이르는 투쟁으로 편집국장, 또는 보도국장을 임명하는 데 일선기자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화했다. 또 편과 왜곡보도를

바로잡기 위한 공정보도운동과 언론윤리를 바로세우기 위한 자정운동에도 앞장섰다. 그러나 신문전쟁이 본격화하면서 자사이기주의 때문에 일선기자들의 편집권독립 운동은 퇴색하기 시작했고 국제통화기금 구제금융 이후에는 언론사들이 거품을 빼기 위한 본격적인 구조조정에 나서면서 기자들이 고용불안에 시달리면서 개혁에 대한 관심이 멀어졌다.

시민언론운동은 75년 자유언론수호투쟁으로 해직된 기자들이 언론사 외부에서 언론운동을 벌이면서 시작됐다고 보아야 한다. 이후 80년 언론통폐합과 언론인강제해직으로 쫓겨난 7백여명의 기자들이 이들과 결합해 민주언론운동협의회를 결성하면서 시민언론운동이 본격화됐다. 그러나 이들의 언론운동은 권력의 끈질긴 탄압과 언론사의 외면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성원에 힘입어 국민성금을 모아 한겨레신문을 창간하는 성과를 올렸다. 언론수용자운동은 80년대중반 방송사의 '행진뉴스'에 반발해 일어난 TV시청료 거부운동이 시발점이다. 시민단체들은 방송은 물론, 신문 보도내용에 대한 모니터링을 본격화하고 시민을 상대로 언론교육을 활발하게 벌여오고 있다. 수용자운동은 언론의 보도내용을 변화시켰다.

언론은 그동안 외형적으로 엄청난 성장을 해왔으나 그에 걸맞은 언론윤리는 성장하지 못했다. 정치권력의 시너노릇을 해오던 언론은 정치권력의 약화와 민주화로 이제는 정치권력에 맞먹는 권력기구로 성장했다. 게다가 권력을 분별력있게 사용하지 못하고 이를 특정집단이나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도구로 이용해왔다. 하물며 한 언론사의 간부가 자사의 회장을 일컬어 '밤의 대통령'이라고 부르지는 않았는가. 게다가 언론은 절박한 생존권에 몰린 사람들이 요구와 주장을 피기 위해 집회나 시위를 하면 거의 예외없이 '과격시위' '교토대란'을 들먹이며 집단이기주의로 매도해왔다. 또 눈길을 끌기 위해 사람들의 말초적 신경을 건드리는 경쟁에 전투적으로 나선다.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고 은 가족이 보는 신문과 방송에 낮 뜨거운 글과 그림을 심는다. 언론은 스스로 공공기관임을 자부하면서도 일반 사기업 못지않게 돈벌이에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언론은 스스로 개혁하려 하지 않는다. 현재처럼 권력을 휘두르며 안주하고 싶어 한다.

언론의 잘못된 존재양식과 운영양식을 바꾸는 개혁작업을 언론 스스로에 맡기면 백년화청이고, 그렇다고 정부에 기대하면



김주연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

언론개혁이다. 따라서 언론개혁을 위해서는 언론의 제작자인 일선언론인과 언론의 소비자인 시민들이 직접 나서지 않으면 안된다.

언개연은 크게 세가지 축으로 언론개혁운동을 펼칠 예정이다. 통합방송법, 정치간행물에 관한 법률 등 언론관련 법과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언론법제개선운동, 미디어교육과정을 초중고의 정규교육과정에 편입시키는 등 매체수용자들이 언론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돕는 수용자운동, 일반시민의 목소리를 그대로 방송할 액세스채널을 확보하는 등 국민이 주인이 되는 방송을 세우기 위한 대안매체운동이 그것이다. 언론개혁을 위해 정부가 나서지 않으면 안되는 부분이 제도개혁과 미디어교육의 제도화 등이다. 이를 위해 시민들은 정부가 제도를 개선하도록 압력을 가해야 한다. 시민들은 신문과 방송의 왜곡 편파보도를 감시하고 언론피해에 대해 적극 대응해야 한다.

재입학문제 다시 '뜨거운 감자'

학칙개정으로 제적생에 배려해야

개강을 즈음하여 제적생들의 재입학에 대한 문제가 다시 불거져 나오고 있다.

현행 재입학제도를 살펴보면 미등록, 휴학기간만료, 자퇴, 학사징계 등의 징계유(학칙 제53조)로 제적된 학생은 학칙 제16조(재입학) "재입학은 제 15조 1항의 여석판단 기준에 따라 해당학년 학부(과)에 여석이 있는 경우 허가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여석이 있을 시에만 복적대상이 된다는 것을 봤을 때 재입학은 그리 만만한 것이 아니다. 재입학제도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제도는 95년 이후 확대된 편입학제도이다.

95년 이전에는 재적생을 여석의 산출근거로 하였지만 확대된 편입학제도는 재학생을 산출근거로 하기 때문이다. 재학생을 기준으로 했을 시 당연히 휴학생도 편입생으로 대체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대학정원이 항상 정원을 초과하는 기현상을 보이고 있다.

제적생들은 98학년 1학기 이전에는 편입생을 선발한 후 재입학희망원을 받았기 때문에 사실상 결원이 생기기 힘들었다. 따라서 2학기 경우 편입생선발에 앞서 재

입학 희망원을 먼저 접수받았지만 편입생선발에 결원이 생기지 않는다면 희망원을 접수해도 전혀 해결책이 될 수 없다.

학칙과 관계자는 이런 재입학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제적에 대한 규정은 학칙에 명시되어 있고, 제적기준에 해당하는 학생에게는 반드시 제적처리 통보를 해주기 때문에 개인의 부주의에서 나오는 일"이라며, "98학년도에는 2학기 75명이 재입학 희망원을 제출했고 약 80%정도 학생이 재입학될 예정이다"고 말했다. 실제로, 주소지가 불분명한 학생이나 등록시한을 넘긴 제적생들이 한 학기에도 몇십명이나 행정적인 측면에서 학교측의 어려움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

물론, 제적과 관련하여 일차적인 책임은 학생 본인에게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학칙에 대한 명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 과연 몇명이나 있을까? 또한, 애교심과 학문의 열정을 가진 제적생들을 학교는 '나몰라라' 해도 되는 것인가.

타대학의 경우도 학칙상 약간의 규정은 다르지만 편입생을 우선적으로 선발한 후 결원이 있을 시에만 재입학을 받아준다.



현재 편입학제도는 학교의 재정확보에 기여하는 면이 만만치 않다. 99학년도 1학기부터 편입학제도를 재적생을 여석의 산출근거로하고 3학년편입만을 실시한다면 재입학제도가 내년부터는 상당히 개선 될 것으로 예상되나 현재 제적생들은 "학칙을 개정해 편입생 관련 학칙과 무관하게 재입학제도를 수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또한 시국사법으로 제적된 한 제적생의 경우 "실제로 학교관계자와 협의했을 당시 재입학 희망자에 대한 우선적 복학을 약속받았다"며, "학칙개정이라는 거사(?)를 치르더라도 제적생들에게 최소한의 배려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제적생들에게 다시 한번 배움의 기회를 부여한다는 측면에서 재입학제도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있어야 하겠다. 현행대로 재입학이 처음 입학보다 더 어려운 관문인 것을 생각하면 재입학제도는 반드시 개정되어야 할 것이고, 학생들 또한 자신도 모르게 제적당하는 실수를 저질러서는 안될 것이다. 오인택 기자

사설

학교가 적극적으로 나서자

개강이 되었다. 잔디밭에서, 오랜만에 만난 이들과의 담소 그리고 수업 및 수강 조정 등으로 분주하게 보낸 일주일이었다. 그러나 이런 개강의 반가움과는 또다르게 우울함이 대학가에 보이고 있다. 사회 전반적인 어려움이 대학에도 예외 없이 그 파급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지난 학기나 전년도에 비해 휴학생이 대거 급증했다는 소식이다. 이런 이유는 IMF와 수재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과 올해 거의 전무할 기업공채로 인한 4학년들의 취업 불안감 때문이라 분석할 수 있다.

이렇듯 요즘 휴학생가의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이다. 경제난, 취업난. 그러나 이 두 문제가 쉽게 해결될 수 있는 간단한 문제가 아닌 이상 앞으로 계속 재학생 휴학비율이 늘어갈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이는 예산의 상당부분을 학생들의 등록금에 의존하는 대학에게는 치명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고, 결코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할 문제의 성질이 아닌 것은 분명하다.

2백만원에 달하는 등록금 마련은 가계에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오는 11일까지 2차 등록기간을 공시했

지만, 실제로 이 기간에도 등록할 수 없는 학생들이 상당수 될 것이다. 몇몇 대학은 학생들의 목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10월말까지 3차에 걸친 등록금 분할납부가 시행된다고 한다. 이렇게 할 경우, 행정상의 문제가 다수 발생할 수도 있지만 수혜자 우선원칙인 대학정책의 일환으로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이다. 본교도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안모색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한편, 학생처에서는 재학생들의 취업준비 방편으로 취업특강, 홈페이지 개설로 취업정보의 상시 공고, 유망기업(벤처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준비하고 있다. 이중에서는 이미 계속 실시하고 있는 것이 있고, 새롭게 준비하는 것들도 있다. 또한 참사람인 증제의 제1기생들이 이번 학기에 배출돼 과연 어떤 실효가 있는지도 곧 판가름날 것이다.

이처럼 학생들의 취업을 제고하기 위해 학교측에서 여러 노력을 쏟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것이 직접적으로 그리고 학생들에게 과연 실질적인 도움으로 다가오는지는 깊은 진단을 해야 할 것이다.

학부제 확대, 첫 걸음은 여론수렴부터

교육부의 고등교육법시행령 발표 이후로 대학사회의 학부제 전면확대의 움직임은 피할 수 없는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물론 이러한 현실에서 본교라고 예외가 될 수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현재 경주캠퍼스에서 논의되고 있는 6개 학부(과)의 통폐합과정에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애초 학교당국은 99년도 신입생 모집에서 학부제의 확대실시는 유보하겠다는 입장을 취했지만, 8월 중의 교육부 보고를 이유로 전체 학내 구성원간의 충분한 의견수렴도 거치지 않은 채 일방적인 학과통폐합 방침을 교육부에 전달했다는 점에서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더욱이 학교측의 방침이 공문화되기 시작하면서 학생들의 반발이 거센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여론을 수렴하려는 학교당국의 노력이 보이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실망스럽다. 그러나, 아직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니다. 오는 17일과 28일로 예정된 양캠퍼스의 구조조정과 관련된 공청회 자리에서 이 학부제 확대에 대한 학내 3

주체의 진지한 논의의 장이 마련된다면, 일방적으로 진행되어 온 논의의 제 궤도로 돌릴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다.

이와 더불어 학내 구성원들은 현실적인 대안을 강구함에 있어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이기도 하다. 과거와 달리 과체제와 학부체제가 양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학부제 확대실시를 두고 해당 학부·과의 입장의 차이가 생기고 있는 것은 주지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를 감안한다면, 학생회측도 이 문제를 자신들의 해당 학과 차원으로 국한시켜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학부제란 큰 틀 안에서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하되 해당 학과의 입장차이를 넘어선 하나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열린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또, 학교측은 서로 관계없는 학과간의 무리한 통합을 자제하고, 과체제의 존립 가능성도 남겨놓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의 여론수렴은 선택의 문제가 아닌 반드시 거치고 지나가야 하는 단계라는 걸 명심하자.

동약로

만도기계 경찰력 투입

정부 강경진압 노동계 반발 확산

회사측 일방적 결정으로 초래된 결과



기대

지난 9월 3일 오후 4시 30분 경주 경찰서 주변 전경이 배치되고 있다. 20여분 뒤 2백50여명의 만도기계 노동자들이 한꺼번에 풀려 나온다.

"어, 아빠다. 아빠" 2명의 꼬마아이와 엄마가 뛰어들고 풀려나온 노동자들은 삼삼오오 모여 담배를 피워댄다. 흥분으로 났던 웃음 때문에 신발, 나코핀 냄새가 배인 손, 검게 그을린 얼굴이 지금까지의 상황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지난 3일, 6백여명의 만도기계 노동자들은 경주시 황성동에 위치한 사원아파트 단지내에서 철야 농성을 하던 중 새벽 6시경 순식간에 들어차던 포크리프트에 의해 강제 진압, 경찰서로 연행되었다. "동자들 일단 아파트 단지내로 갑시다" 1백여명이 경찰 진압차 2대 주위에 가득매워 앉았다. "감히 있느라 수고했다. 안에서 하나도 못 먹었제. 활인 판매장 밖에서 이종마을이 음식 장만해 놔다. 일단 허기부터 달래라", "조사를 하더라도 사람 굶기지나 말아야 되거 아가" 리퍼 한쪽에서는 그것을 잊고 또

한쪽에서는 뒤편장개에 밥을 비비느라 정신이 없는 아저씨들, 그 틈바구니에 매달린 어린 아이들, 허기진 배를 채우고 있는 노동자들의 모습 등은 모두가 일사분란했다.

"나머지 20여명은 어떻게 됐죠?", "아파트 회사측에서 평소 주시해온 주요 인물들의 방단을 경찰에 신내준 것 같은데... 아직까지 조사를 받고 있지 않겠나" 건너편에 보이는 2백여명의 전경들은 여전히 얼굴을 내밀고 있다. 같은 시각, 노조원들은 다시 모였다. "투쟁이 우리가 내세운 최선의 방법입니다" "맞다. 우리는 더 이상 갈 곳이 없다. 회사측은 정리해고를 하지 않으려면 상여금과 임금 삭감을 요구했는데..." "이것저것 다 깎고 나면 한달에 40만원 갖고 유에 사노. 결국은 지랄로 나가라는 소리 아가" 비랑골에선 노동자들, 연행에서 풀려난 노동자들의 초췌한 눈망울들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

정희정 기자

현대자동차 사태 이후 지난달 17일부터 전국 7개지역에서 동시 파업을 감행했던 만도기계 사업장에 처음으로 경찰력이 투입돼 정리해고 문제가 전면화됨으로써 노동자들이 피해질 수 없는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만도기계는 회사측과 노조측이 지난 2월 23일 '정리해고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고용합의서를 작성했으나 회사측은 고용합의서를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지난 8월 초 노동부에 "전 사업장 4천2백여명 중 1천 90명을 정리하고 하겠다"고 선포해 만도기계 7개지부 사업장이 동시에 총파업을 실시하게 됐다.

지난달 17일부터 파업을 실시한 만도기계 노조는 지난 2일까지 파업을 지속했고, 정부는 지난 3일 새벽 6시에 전국 7개지역 사업장부에 동시다발적으로 경찰력을 투입해 무차별 강제해산을 감행했다.

이러한 경찰력 투입이 가능하게 된 주요인으로는 만도기계의 사업장이 전국 7

개지역에 분산되어 있어 파업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아 경찰이 조직적으로 강제해산하기에 용이했다는 점에 있다. 또한 보수언론의 편파보도로 인해 정리해고가 구조조정의 자필결이라는 여론조성이 한 몫했다는 지적이다.

경찰력 투입 후 오전10시 현재 만도기계 사업장 지부별 피해현황을 살펴보면 △의산지부=조합원 1백 50명·가족 1백여명 연행 △대전지부=80명 연행, 조합원 4명 부상 △문막지부=지부장 등 수배자를 제외한 집행간부 전원연행 △평택지부=10여명 연행, 경찰력 투입으로 농성장소 옥상으로 이동 △아산지부=9백여명 연행, 1백30명 옥상에서 전경과 대치중 △영원지부=전원연행 △경주지부=3백75명 연행 등이다. 만도기계 사업장중 경주지부에서는 강제침입 전날인 2일 11시경 전경들과 대치상황에서 뺨맞은 어린이들이 그뒤에는 부녀자들이 자진해서 은둔으로 전경들을 저지하면서 가족들의 질박한 심정을 단적으로 보여줬다.

그러나 다음날 새벽6시 현장에 있던 임신 7개월 상태의 산모가 경찰에 군화에 의해 배를 짓밟혔으며, 다수의 노동자들이 강제 연행되었다.

이날 사전 통보도 없이 진행된 비인도적인 경찰의 강제해산 및 연행으로 많은 노동자들과 가족들이 크고 작은 부상을 당했다.

이에 파업에 참가한 경주지부 만도기계 노조원은 "새벽에 경찰력이 투입됨으로 인해 상황에 대처하지 못해 부상자가 많았다"며 "이런식으로 정부가 나온다면 우리도 끝까지 파업에 참여할 것이다"고 말해 정부의 강경력 투입에 대해 강력히 비난하고 나섰다.

또한 강제연행된 노조원들은 당일 오후에 노조간부와 강심노동자들을 제외한 조합원만을 풀어줘 노조단위의 형태가 현대자동차 사태 이후 더욱 극심하다는 비난이 거세게 일고 있다.

한편, 노조원들은 정리해고 필요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경찰력 투입으로 강제연행된 만도기계 노동자들이 3일 오후 5시경 경주경찰서에서 몇몇 조합원을 제외하고 풀려나는 모습.

만도기계는 계열회사인 한라중공업에 5천여억원을 대여해 주는 등 회사경영상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음에도 회사측은 "적자로 인해 정리해고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노조측은 "한라중공업에 자금도 대여하는 회사가 적자가 났다면 누구의 잘못인가? 부실경영자의 퇴진을 요구한다"는 입장을 보이는 등 노사간의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제2의 무력충돌이 예상된다.

무엇보다도 만도기계 파업을 강제진압한 정부로서는 "고용조정을 반대하는 불

법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법집행 확립을 그려볼 수 있다"는 명분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며, 무력적으로 경찰력을 투입해 강제해산했다는 점에서 정부는 비판의 화살을 피할 수 없는 처지에 놓였다.

이번 만도기계사태는 언론의 여론몰이와 함께 정부의 실업대책이 불투명한 것이 사태의 원인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앞으로 노동계의 반발이 거세질까 동시에 '인권유린' 상황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박양우 기자

“생존권·양심수 문제 이제는 우리가”

시민·학생 공대위 결성... 인권문제해결 병행 추진

민중의 기본권 보장과 양심수 석방을 위한 공중대책위원회(상임대표=홍근수·항원교회 담임목사 이하 공대위)는 지난 2일 오후 6시 명동 항원교회에서 창립대회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진관 스님, 오세철 교수, 권오현 민가협 공동의장 등 50여명의 시민과 학생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이번 창립대회는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김규철 이사의 사회하에 △홍근수 상임대표의 개회사 △민중의례 △이기형시인의 추모사 △국가보안법'에 대한 헌법소원 등을 주요활동 과제로 설정해 놓고 있다.

“한총련을 포함한 모든 대학생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 이기형 시인은 죽기를 통해 '국가보안법'을 폐기해 국민기본권을 보장해야 하고, 주한미군을 철수 시켜 국가주권을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홍근수 상임대표는 개회사에서 "민주화를 얘기하는 것이 죄가 되고, 통일을 얘기하는 것이 죄가 되는 것이 우리 사회의 현실이다"라며 "모든 민중의 기본권이 보장되고 양심수가 모두 석방될 때까지 열심히 노력하자"고 공대위 창립의의를

표명했다.

이어 민주노총 이강용 위원장은 격려사를 통해 "민주노총을 비롯한 모든 노동자들 또한 열심히 이 투쟁에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대위는 창립선언문을 통해 '민중의 기본권 보장과 양심수 전원석방'을 목적으로 △반민권법 남측본부와 한총련등 진보 운동단체에 대한 이적규정 철폐와 자유로운 민간통일운동 보장 △모든 양심수의 즉각적인 사면과 복권 △김정일사건 시절의 구속사실과 △이기형시인의 생존권보장과 노동자의 진보정치활동 보장 △기타 인권 보호운동 등을 주요 사업으로 채택, 이후 활동계획으로 천명했다.

한편, 공대위는 이날 홍근수 목사의에 진관스님과 오세철 교수를 상임대표로, 권오현 국민승리21 대표, 권오현 민가협 공동의장, 문규현 신부, 이수금 전농의장, 김귀식 전교조 위원장, 손준혁 6기 한총련 의장을 공동대표로 선출했다.

공대위의 창립을 계기로 그동안 꾸준히 제기되어오던 민중의 생존권 문제와 양심수 석방문제는 더욱 활기를 띠 것으로 기대된다.

유철주 기자

김종명 목사 인터뷰

“부모들이 나서야 할 때입니다”

가칭 '한총련학부모모임회(이하 한학협)'를 조직하고자 등분서주하고 있는 의정부 은평교회의 김종명 목사를 만나 결성 배경과 활동계획에 대해 물어 보았다.

-한학협 결성배경은.
=소위 말하는 문민정부하에서 시작된 한총련 탄압을 보면서 학생들의 잘못보다 당시 정부의 책임이 더 크다고 생각했다. 김대중정부가 출범하면서 전 정부와는 다르게 많은 기대를 했었지만 기대와 전혀 다른 모습을 보면서 이제는 부모들이 직접 나서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결성하겠다는 마음을 먹게 된 것이다.

-한학협 결성소식이 전해진 후 학부모들의 반응은.
=월간지인 '말'과 '길'에 나의 뜻이 전해진 이후 기대에는 못미치지만 뜻있는 부모님 몇 분이 연락을 해왔다. 이후에도 많은 분들이 동참해서 한학협이 예정대로 9월 중순 출범할 수 있기를 바란다.

-한총련 수배자인 아들을 두고 있는데, 부모로서 힘든 점은.
=큰 아들이 현재 한신대학교 동아리 연합회장인 김지복(신학)군이다. 6기 한총련 대의원으로 지난 6월부터 수배생활을 하고 있는데, 부모인 내가 직접 겪고 있는 고통은 아직 특별히 없다. 그러나 당사자인 아들이 예정같이 신앙생활과 학교생활을 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다.

내역시 정부당국으로부터 아들의 지속적인 한총련 탈퇴입력을 받았다. 정치수배자가 죄인으로 취급당하는 현실이 안타까운 따름이다.

-한학협의 향후 활동계획은.
=한총련학선 학부모들의 순수한 조직으로 우선 한학협을 결성한 다음, 여러 가지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우선 관련학생들의 구속·수배현황을 파악하고, '한총련'이라고 하는 조직에 대한 공부 및 연구, '한학협'이라고 하는 조직의 이름을 통한 적극적인 탄원활동, 96년의 연대사건과 97년 5기 한총련



출범식에 대한 진상규명작업, 한총련 이적규정에 대한 재심청원과 대의원의 구속사유인 '국가보안법'에 대한 헌법소원 등을 주요활동 과제로 설정해 놓고 있다.

유철주 기자

위기를 기회로, 절망을 희망으로...

“미래에 도전하는 젊음은 아름답다”

인간에 대한 무한한 애정과 신뢰는 오늘의 우리시대를 이겨내는 최적인 무기입니다.

그 어느 때 보다도 길었던 여름을 견어내고 새로운 기대와 설렘으로 맞는 캠퍼스의 '개강'은 가을하늘 만큼이나 싱그러움만 합니다. 그러나 IMF, 구조조정, 퇴출, 실직, 실업 등 어색했던 말들이 일상의 생활속에 익숙해져 가는 현실을 발견합니다.

나와 '우리'가 선택한 길은 아니지만 외환경제위기라는 비운(Fate)의 시대를 겪어낸 성장과 반성으로 감내하고, 우리 주변에 만연한 거품(Blam)을 견어내는 노력으로, 밀바닥(Floor)에서 새로운 미래(Future)를 개척해 가는 대학인만이 아름다운 미래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절망을 희망으로.....
대학문화신문은 언제나 도전하는 대학인과 함께 하겠습니다.



대학문화신문
서울시 서초구 잠원동 32-8 세정빌딩 4층
대표전화 3446-1667 팩스 3446-4874
유니텔·전리텔·하이텔·나우누리 ID UCPress

대학문화신문 정기구독신청서

연간구독기간	1998년()월부터 1999년()월까지
연간구독	주소
신청하시는 분	소속 ()대학 ()대학 ()학과
	연락처
신문받야	주소
보실 분	소속
	연락처
구독료	()은영입금
납부형태	*대학문화신문 연간구독료는 20,000원입니다.

위와같이 대학문화신문 정기구독을 신청합니다

1998년 월 일
성명: 서명

대학문화신문 독자관리부 귀중

*연간구독을 신청하실 분은 위 내용을 기재하신 팩스(3446-1664) 또는 우편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며, 정기구독자에게는 봉투로 우편발송을 해드립니다.
*연간구독료는 아래 은행 온라인 계좌로 입금하신 후 독자관리부(전화 3446-1667)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민은행 817-01-0250-663 예금주 대학문화신문
● 새마을은행 129-20-131197 예금주 대학문화신문
*연간구독 문의처: 대학문화신문 독자관리부
서울시 서초구 잠원동 32-8 세정빌딩 4F
전화 3446-1667/팩스 3446-6164

통일특설 설문조사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 (의장=김세규 이하 전대기련)은 지난 8월9일부터 8월11일까지 3일간에 걸쳐 서울시민과 대학생 327명을 대상으로 '통일특설'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10명 중 9명 "통일 이뤄야 한다"

제2의 건국 역사적 전환점...남북통일 국가적 과제로 인식

서울시민 10명 중 9명은 통일을 이뤄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대기련이 실시한 이번 설문조사는 남북통일에 대한 생각, 남북통일방안, 전대기련 방북취재 불허, 한총련·범민련 이적단체 규정 등에 관한 내용으로 실시했다.

일대일 면접방식으로 치러진 이번 설문조사에서 남북통일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통일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64.52%, '가급적 통일이 되는 것이 좋다'는 27.82%로 응답한 반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으므로 현재대로가 좋다'는 의견은 8.25%에 그쳤다. 시기적으로 지난 6월10일, 북한이 남한에 있는 85개 정당·사회단체 등 민간단체에 '8·15통일대추전'을 판문점에서 함께 치루자고 제안한 것과 김대중 대통령 취임초기에 3대 통일과제를 설정한 것 등의 요인이 국민들의 통일외식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친 것으로 전망된다.

남북통일방안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는 남한의 자본주의 체제도 통일(38.83%), 두 체제 독립적으로 공존공영(1국가 2체제 2정부)(37.3%), 혼합 중간 형태(18.98%)가 18.98%로 나타났다.

남북통일방안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는 남한의 자본주의 체제도 통일(38.83%), 두 체제 독립적으로 공존공영(1국가 2체제 2정부)(37.3%), 혼합 중간 형태(18.98%)가 18.98%로 나타났다.

남북통일방안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는 남한의 자본주의 체제도 통일(38.83%), 두 체제 독립적으로 공존공영(1국가 2체제 2정부)(37.3%), 혼합 중간 형태(18.98%)가 18.98%로 나타났다.

남북통일방안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는 남한의 자본주의 체제도 통일(38.83%), 두 체제 독립적으로 공존공영(1국가 2체제 2정부)(37.3%), 혼합 중간 형태(18.98%)가 18.98%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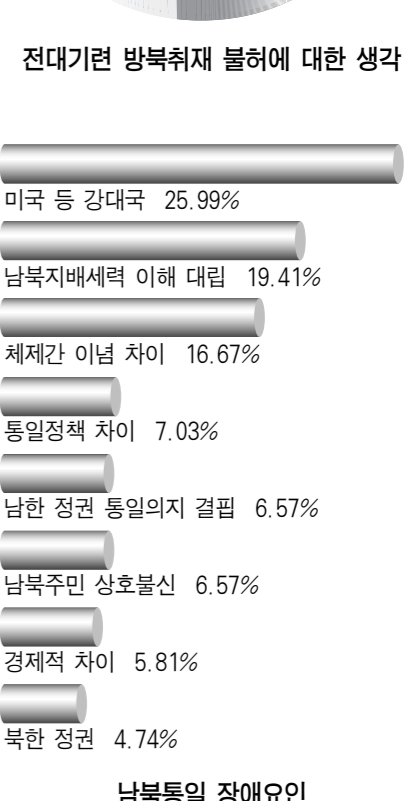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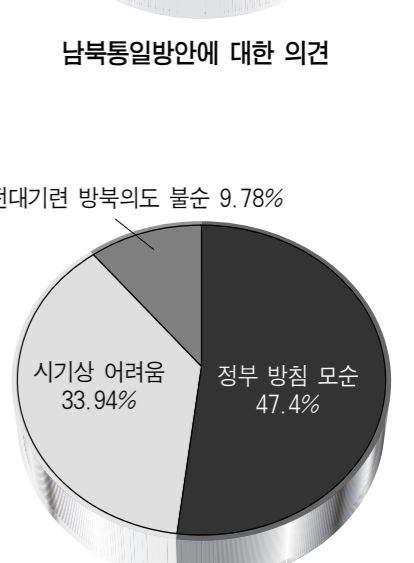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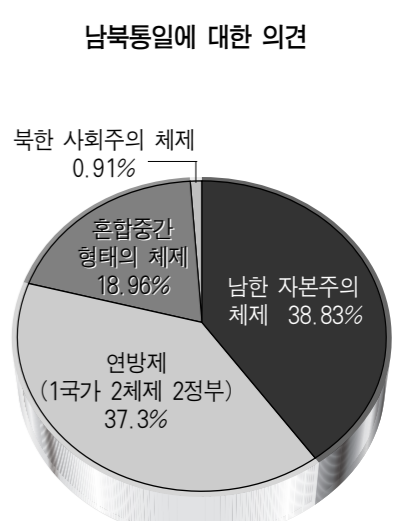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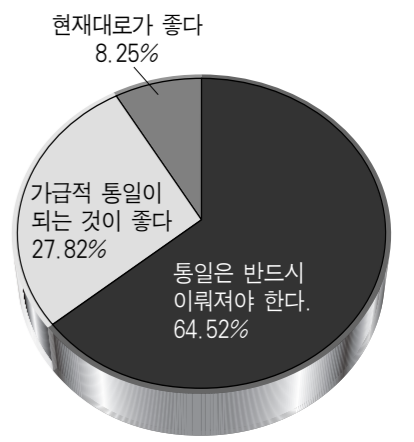
통일대추전(통치그룹)간의 이해대립(19.41%), 남북 체제간의 이념 차이(16.97%), 남북 정권의 통일정책 차이(7.03%), 남한 정권의 통일외지결립(6.57%), 남북한간의 경제적 차이(5.81%), 북한 정권의 통일외지결립(4.74%), 남북주민간의 상호불신(6.57%) 순으로 집계됐다.

한편, 정부가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위한 대추전'에 한총련과 범민련 두 단체를 이적단체로 규정짓고 행사 참여단체에서 제외시킨 것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66.05%가 올해 8·15통일대추전이 헌법상 적인 북과 함께하는 마당에 통일을 열원하는 모든 민간단체들이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응답했고 12.53%만이 통일운동은 정부가 주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전대기련이 98학년도 1학기에 추진했던 방북취재사업이 정부의 불허방침으로 무산된 것에 대한 질문에 방북취재는 민간교류의 일환이므로 불허한 것은 정부 방침에 모순된다(47.4%), 올해 방북취재를 하는 것은 시기상의 어려움이 존재할 수 있다(33.94%), 대학생들의 방북의도가 불순하다(9.78%)였다.

정부수립 50주년은 '제2의 건국'이라는 역사적 전환점에서 남북통일을 반드시 이루어야 할 국가적 과제로 인식하는 국민들의 의식에 이번 설문조사를 계기로 다시 한번 확인됐다.

사회부



설문지 마지막 질문인 '만약 방북취재를 하게 된다면 어떤 내용을 취재하고 싶습니까?'의 답변 중 반복되는 내용을 제외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들여보면 다음과 같다.

통일에 관한 취재

- △북한 주민의 통일에 대한 절실함
- △북한 주민들이 생각하는 통일 이후 사회상에 대한 견해
- △남북이 통일할 수 있는 모든 조건
- △북한 대학생들의 통일외지
- △권력층의 통일외지
- △정신적 이질감 극복방안

북한 주민들의 생활

- △북한의 가정생활 및 가정경제
- △주민들의 삶에 대한 만족도
- △북한 노동자들의 삶에 대한 만족도

북체제에 관한 내용

- △북한 사회 폐쇄성 인식도
- △북한의 사상이념
- △주민들의 북한 정권에 대한 생각
- △인간 김정일에 대해
- △김정일 체제의 구체적 현실
- △권력승계 과정에 대한 취재
- △자본주의 수용여부

북한의 경제

- △식량사정에 대한 구체적 사례

교육에 대해

- △북한의 교육체제
- △초중고생들의 생활과 교육내용

기타

- △상위층의 의식수준 혹은 성향

99학년도 전기 동국대학교 대학원 특별전형

1. 모집학과 및 인원 : 각 학과별 약간명

계열	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
인문사회계	불교, 선, 인도철, 국어국문, 영어영문, 독어독문, 일어일문, 사, 미술사, 철, 국민윤리, 교육, 법, 정치, 행정, 경찰행정, 사회, 북한, 경제, 경영, 무역, 회계, 정보관리, 농업경제, 지리	불교, 선, 인도철, 국어국문, 영어영문, 사, 미술사, 철, 국민윤리, 교육, 법, 정치, 행정, 경찰행정, 사회, 경제, 경영, 무역, 회계, 농업경제, 지리
자연과학계	수, 물리, 화, 통계, 반도체과학, 응용생물, 가정, 농, 임	수, 물리, 화, 통계, 응용생물, 가정, 농, 임
공학계	전자공, 컴퓨터공, 전기공, 토목공, 건축공, 화학공, 식품공, 산업공, 기계공	전자공, 컴퓨터공, 전기공, 토목공, 건축공, 화학공, 식품공, 산업공
예체능계	연극영화, 체육, 미술	연극영화
경주캠퍼스	화, 응용생물, 가정, 조정, 전지계산, 안전공, 한의학, 의학, 한문(서울수업가능)	한의학, 의학
멀티미디어 등 과정	전자공, 컴퓨터공, 경영, 연극영화	

※ 본 대학원은 석사과정 3학기, 박사과정 4학기내에 수료 가능함.

2. 지원자격

- 1) 석사학위과정 : 국내·외 4년제 정규대학 학사학위 취득자 또는 취득예정자.
- 2) 박사학위과정 : 국내·외의 정규대학원에서 석사학위 취득자 또는 취득예정자.

3. 전형방법 : 서류심사와 구술시험

4. 지원서교부 : 98. 8. 31(월)~9.11(금)

5. 지원서접수 : 98. 9. 10(목)~9.11(금)
지원서는 09:00~17:00까지 본 대학원 교학부에서 교부 및 접수함.
(단, 토요일 및 공휴일은 본교 학술문화관 수위실에서 교부함)

6. 전형일시 : 98. 9. 18(금)10:00

※ 석·박사과정 동일계 출신이 아닌자도 응시할 수 있음(한외, 의학과는 제외)

입시안내 인터넷주소 : http://dgucc.dongguk.ac.kr
E-mail : amny@cakra.dongguk.ac.kr, bskkk@cakra.dongguk.ac.kr
기타 상세한 내용은 동국대학교 대학원 교학부(☎260-3093~4, FAX 260-368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 학 원 장

98학년도 가을학기 사회교육원 모집안내

1. 교육과정

과 정 명	세부과정	과목(반)	교육기간	
부트 캠프	불교란 무엇인가?	1·2	1학기	
	좌선법의 이해와 실제	1·2	1학기	
	사군자	오전·오후·야간반	2학기	
	시예	한글·한문	2학기	
	재(財)테크 교실	금융채택컨설팅	1학기	
		생활채택	1학기	
	신기공	초급·중급·고급·시범반	4학기	
	생활중수	초급·중급·고급·야간반	2학기	
	생활영어	초급·중급·연구반	3학기	
	외국어회화교실	영어·2	1학기	
전	사건활영	중급·야간반	2학기	
	댄스교주		2학기	
	시공예		1학기	
	수직		1학기	
	화지그림공예	기초·고급반	2학기	
	전통생활자수		2학기	
	전통민화실기	1·2	2학기	
	전통민화		2학기	
	수포초이스지		1학기	
	박	불교전문교육	유시학 비교종교 인도의 수행론 정토사상 공의세계	4학기
불교연구		불교와 생활 개척의 세계 불교연구 1·2	2학기 2학기 2학기	
통		동국대TV블로그카메이	방송의 생애와 사상 한국선사상의 이해 한국불교의 발전	2학기
		가상강좌	유시학 불교미술의 이해 인도사상의 전개와 불교	1학기
특	가상강좌	사이버 창작의문 사이버작문	1학기 1학기	
	컴퓨터인화	멀티미디어제작 워크샵 영상 제작이나 디지털 애니메이션	2학기	
과	표현예술치료	1·2·3·4단계	4학기	

2. 모집대상 및 자격

제한 없음(단, 불교영양지원자는 고졸 및 동등학력이상인자에 한함)

3. 원서교부 및 접수 : 98. 8. 10(월)부터 사회교육원 교학과(90주년 학술관 1층)

4. 제출서류 : 수강원서(소정양식) 및 사진(여권용)3매

5. 문의할곳 : 동국대학교 사회교육원 교학과
전화 : 260-3728, 3729 / FAX : 260-3730

사 회 교 육 원

동국참사람봉사단 사회봉사 단원모집

98학년도 가을학기 사회봉사단원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대상 : 이웃과 사회에 봉사하고자 하는 '재학생, 교수, 직원'
2. 신청서접수기간 : 98. 9. 7(월)~9. 15(화)
3. 봉사활동기간 : 98. 9. 21(월)~98. 11. 30(월)
4. 접수처 : 학생처 장학과 (☎260-3050)
5. 봉사결과 : 기간내(3개월) 동안에 33시간 이상 봉사활동을 마친 학생은 평가 결과에 따라 학점(자유선택, 사회봉사 1학점Pass)을 부여하며, 취업·진학을 위한 사회봉사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수강신청 제한학점을 초과하여 신청할 수 있고, 재학기간 중 계절별(봄, 여름, 가을, 겨울)로 1학점씩 2학기까지 인정함).

- 개인 및 단체접수를 환영합니다.
- 봉사대상단체와 봉사기간 및 시간을 본인이 자유롭게 선정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봉사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봉사대상단체도 추천받고 있습니다.

동 국 참 사 람 봉 사 단 장

책 소개

이창배 전집 1.2

영미시결작선, 미국초절주의자 3인선



본교에서 근 40여년간 영문과 교수로 재직하고 현재 명예교수로 있는 이창배 문학박사가 '이창배 전집'이라는 문패를 달고 내는 열두권 중 첫 번째와 두 번째 책.

1권은 영국과 미국의 걸작 시와 섹스피어, 해밍웨이등의 시를 번역해 실고 2권에는 미국의 초절주의자 에머슨과 소로, 휘트먼의 개인적, 문학적 지향점과 생애를 기술하고 있다.

동국대학교 출판부, 권당 정가-1만 2천원, 1만 5천원.

선언 150년 이후

'공산주의당 선언'이 나온지 1백 50주년을 기념해 열린 파리국제학술대회에 기고된 논문으로 전체 3책 15개 논문 중 18

개의 논문을 번역해 실었다. 필자들은 학자에서 좌파이론가, 페미니스트, 저널리스트, 노동운동가로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으며 대부분이 '선언'의 비판적 패러다임의 의의가 여전히 유효하며 이런 논의는 이후에도 적실성을 가지고 두드러질 것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서출판 이후, 정가-1만 1천원.

언론을 바로 세우는 사람들

'언론의 주인인 민중에게 이 책을 올립니다' 민중의 신문으로 자칭해온 한겨레의 창간 10년 주년을 맞아 한겨레 신문 전국 독자주주모임에서 한겨레 독자주주운동 10년사를 엮었다. 10년의 발자취와 독자주주운동을 주동해온 노동자, 농민, 학생의 이야기 그리고 독자주주운동 중 해직된 기자의 복직투쟁 등을 담고 있다. 실릴터, 정가-1만원.



제1회 전국대학생 마당놀이 경연대회

“우리것은 우리가 지킨다”

전통성과 공연성 맞물린 우리 문화 발굴할 터

우리 것이 좋아서 한 여름을 땀 흘리며 보낸 젊은이들이 모였다. “네가 백팔염주를 손에 들고 있는 것을 보니 저 옛 절 중에 분명하구나. 그런데 종이면 절에나 있어야지. 저 예쁜 아가씨를 ...” 취발이는 종과 한 관 힘겨루기를 한후, '내 돈으로 네 마음을 사야겠다'며 아가씨 앞에 엽전을 던진다. 이 때 문수보살을 태우고 다닌다는 사자가 등장해 노스님을 파계시키려고 한 그를 엄하게 꾸짖는다. 여러 취발이들은 앞으로 깨끗히 살것노라고 맹세를 한다. 이어서 탈을 쓴 취발이, 노스님, 예쁜 아가씨 그리고 사자가 마당에서 한 관을 벌인다.

지난 29, 30일 이틀간 서울놀이마당에서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의 주최로 열린 전국대학생 마당놀이 경연대회의 한 장면이다. 우리나라의 전통문화를 젊은 세대에게 계승하고 후계자를 양성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대회는 고려대학교 탈춤관의 분산탈춤을 필두로 이틀간의 대회에 들어갔다.

총 19개 대학의 학생들은 중요무형문화재인 하회별신굿놀이, 흥영오광대, 이리농악 등과 이외에도 일실 설장고, 고창농악 등 공간 전수받은 관을 하나하나 만들어 냈다. 그 중에서 탈춤은 우리에게 많이



익숙한 '탈춤'이 무능한 양반들을 비판하는 마당, 작은 마누라의 치마폭에 쌓여 조강지처를 버리는 마당, 새색시를 재물로 바치는 무동마당' 등을 선보였으며, 농악 놀이는 북, 징, 소고 등의 전통악기로 관객들의 흥을 몰아주었다. “알고보면 이런 전통놀이엔 관심있는 사람이 많아요”라는 김성원(동양공전 3)군의 말처럼 이날 서울놀이마당은 7-8백여명으로 가득 메워졌는데, 대학생 경연대회임에도 불구하고 할아버지, 할머니에서부터 어린아이까지 관객층이 다양했다. 이들은 ‘다같이’라는 상해의 말에 따라 ‘열수, 종다이’라며 호흡을



음악 시연이 있었는데, 이 마당은 경연대회에 참가했던 학생들과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함께 어우러져 크게 하나되는 자리가 되기도 했다. 전통성과 공연성에 중점을 두었다고 말하는 임동권 심사위원장은 대회의 취지를 충분히 달성했으며, 소박하고 흥겨운 마당이었다고 이번 대회를 평가했다. 그리고는 탈춤이나 농악 이외에도 민요, 민속놀이 등 다양한 분야를 대학 주변의 마당놀이로 발굴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박영실 기자

역지사지

달하나 천강에

마음은 맑아야 하고, 비어 있어야 한다. 비어 있는 마음은 맑은 마음이다. 어떤 편견이나 독선을 고집하는 사람은 마음이 하나로 뭉려 있는 사람이다. 어떻게 보면 고집이 가라앉아서 뽀얀이 되어 있는 것이다. 그 뽀얀이 손을 대면 바로 흐린 물로 바뀌게 된다. 그러나 본래부터 깨끗한 모래나 자갈로 되어 있다면 누군가 물질을 하여도 파란 맑은 물이 흐르게 될 것이다.

우리를 주변에 종교적 편향성으로 말미암아 남의 종교를 비방하거나 파괴하고, 방화하는 일들이 자주 일어나고 있다. 이것은 제 믿음은 옳고, 남이 믿는 종교는 미신이나 지우행으로 확신하고 있는 소치다. 남의 믿음도 좋은 것이 있다고 인지하지는 않더라도 살다보면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도 있을 법한 일이라고 짚어보면 되는 것인데 유독 제 믿음만 고집하고 남의 신앙을 사찰하거나 해치려고 하는 것은 신앙적 인격체라고 할 수 없다.

그런데 내 주변에는 참으로 정정한 사람이 있으니 존경스럽게 한이 없다. 나이가 지긋한 신부님이시다. 버젓한 성당에서 성사활동을 열심히 하시는 분인데, 불교가 배우고 싶어서 대학원에 나오고 계시다. 그 분은 불교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여름 수련회에 참석하여 전배를 드리는 용

맹평진도 하겠다고 자랑스럽게 얘기하곤 하셨다. 사찰의 수행을 답박에서 듣는 것과 편이한 신앙세계가 있다라고, 바루공양, 참선, 묵언, 예경이 모두가 인간의 세계에서 무어라고 말할 수 없는 적멸의 세계, 하나의 삼매에 이르는 힘이 있다고, 또한 새벽공기를 헤치며 산사를 한 바퀴 돌면서 포행을 하는 것은 인생의 어떤 여정보다 엄숙한 것이 있었다고 하겠다. 과연 그 곳에는 무엇이 있다.

그러나 거기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찮게 보이는 것이다. 그리하여 비방하고, 훼방하고, 방화한다. 사람은 다소곳하게 눈을 감고 나의 몸속에 어떤 뽀얀이 있는가 생각하여 보아야 한다. 내 마음 속에 편견의 먼지가 쌓여 있다면 아주 약한 바람에도 먼지 바람이 일어나게 된다. 이 먼지 바람이 시야를 가리게 되면 천지 사방을 가리지 못하고 천망지축 뒤뚱거리며 남을 괴롭히게 된다. 마음의 먼지가 일지 않는 사람은 언제나 열반삼매에 서 하늘을 보고, 땅을 걷는다. 언제나 걸어도 걸을걸이가 가볍다. 올바른 견해를 갖고 세상을 살며 남의 허물도 감추면서 보살피게 된다. 제 삶이나 믿음만 옳다고 고집하면 남의 행위가 고깝게 보이고, 꼬집고 싶다. 이 병을 고쳐야 할 것이다.



목 정 배 불교대 불교학부 교수

위안부 역사관을 다녀와서

“여기 아물지 않은 역사가 있다” ... 한 서린 위안부 삶 조명

경기도 광주군 퇴촌면 원당리에 위치한 나눔의 집에는 우리가 잊어서는 안될 아픈 역사의 기록이 있다. 바로 지난 8월 14일 민간단체와 익명의 독지가들의 후원으로 건립된 위안부 역사관이다.

위안부 역사관은 어두운 역사의 희생자인 위안부들의 자취를 남기고 후세들에게 역사교육의 장으로 쓰이게 한다는 목적으로 지어졌다.

전시관은 크게 두 공간으로 나뉘어 있다. 제 1관에서는 증언의 장, 체험의 장을 통해 위안부의 실체를 알리고 아픔을 느껴보는 공간으로 쓰이고 있다. 제 2관은 기록의 장, 고발의 장, 추모의 장으로 일본군의 만행을 밝히고 이미 세상을 떠난 위안부들의 일흔을 달래는 공간이다.

제 1관의 '증언의 장'에는 위안부의 실체를 최초로 밝힌 고 김학순 씨와 다른 위안부들의 육성을 듣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바로 잡아야 했다. 일본이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기에, 하고 싶은 말을 반드시 해야만 했다”는 김학순 씨의 육성은 다른 어떤 전시물보다 가슴에 와닿는다. 또한 위안부의 위치를 지도로 나타내고

있는데 셀 수도 없을 만큼 붉게 표시된 지도는 당시의 참혹함을 보여주고 있다.

증언의 장을 뒤로하고 들어선 공간은 실물위안소가 설치된 '체험의 장'이다. 위안소에서 실제로 사용했던 군포와 사쿠(콘돔), 약품들은 일본군의 만행을 말없이 증명하고 있다.

광복은 분명 우리 민족에게 큰 기쁨이요, 압박과 설움에서 해방된 역사적 기쁨이었다. 그러나 증거인멸을 위해 폭격당하고 치욕스런 과거로 인해 고국을 등져야 했던 위안부들에게는 슬픔일 수밖에 없었다. 제 2관의 '기록의 장'에서는 50여년간의 그늘속에서 숨어 지내온 위안부들의 삶을 비로소 내보이고 있다.

'고발의 장'은 타국에서는 힘없는 이방인으로, 조국에서는 부끄러운 과거로 살아온 위안부들의 발자취를 담아내고 있다. 여기 이곳 위안부 역사관에는 쉽게 아물지 않은 역사가 있다. 아직도 위안부의 존재를 부정하고 있는 일본, 잔인한 인권



위안부 역사관 전경

우린의 역사를 덮으려고만 하는 일본에 우리는 분노한다. 또한 50년의 어둠속을 헤치고 우리 앞에 선 위안부들의 아픔을 잊을 수도 없다. 위안부 역사관을 통해 전쟁으로 인한 여성들의 인권상실을 고발하고, 가해 당사자 정부의 진심어린 사죄와 배상을 촉구하는 장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하루빨리 용서와 화해의 장이 피어나길 기대해 본다. (은)

단기강좌 안내

기간 : 1998년 9월14일 ~ 10월 21일

강좌명	강사	내용	요일/시간	비고
성공을 부르는 스피치(speech) 기술	이정숙 (前KBS 아나운서 JS컨설팅트링장)	1. 커뮤니케이션의 애곡과 문제진단 2. 성공화법 3. 1분스피치(수강생 video 녹화분석) 4. 개인 스피치 태도 분석 5. 상황에 적합한 스피치 기술	매주 수요일 10:00~12:00	선착순 30명 실습위주
댄스 & 댄스 (탱고 & 왈츠)	손재현 (동국대 체육교육과교수)	1. 기본스텝연습 2. 실기 3. 반복	매주 수요일 3:00~5:00	편한복장 면양말, 선착순 40명
이미지 메이킹	신단주 (동덕여대메이크업과 교수, 신단주메이크업 아카데미원장)	1. 얼굴형에 따른 수정메이크업 2. 호감이 가는 화장법 3. 눈썹, 볼, 입술화장 4. 셀프 헤어테크닉 5. 토털 이미지 메이킹	매주 목요일 2:00~4:00	
선물 포장법 & 리본매기	장경이 (한국꽃예술작가 협회장이 꽃꽂이회 회장)	1. 선물포장 이론과 실기 2. 리본장식의 이론과 실기 3. 개인활동과 향후 취업방법	매주 월요일 2:00~4:00	
대학생을 위한 창업스쿨	한국창업지원센터	1. 창업과 창업자금 조달 2. 창업자금 지원제도 3. SOHO 유망 아이템	매주 금요일 10:00~12:00	

* 기타 자세한 문의는 260-3056으로 하시면 됩니다.

여학생부처

DUBS 주간 편성표

월	화	수	목	금
8:30	동악의 새아침			
	우리말 알고 씩시다			
9:00	캠퍼스 뉴스			
12:10	DUBS 캠페인			
12:15	DUBS 캠페인			
12:20	캠퍼스 리서치	자유소리통 외부인 칼럼	동악헤드라인 시사상식	백상 초대석
12:30	복선의 이해			
12:35	동국탐방	알기쉬운 경제	이주의 토크	
12:45	민중의 노래			
4:50	DUBS 캠페인			
4:55	영화 음악 한마디			
5:00	About Musical	캠퍼스 잉글리쉬	The Live	첼린저 20
5:15	9교시 음악시간	테마가 있는 이야기	Go ac DUBS	음악속의 소설 여행
5:20	판도라의 음악상자			

DUBS 교육 방송국

세계화의 정치경제학

1. 인사 및 기초 발표 김진철(사회과학연구원) "세계화 정치경제학의 본질"
 2. 주제발표
 - 제1주제 : 김대환(인하대, 경제학과 교수) "세계화시대의 국민경제"
 - 제2주제 : 김호기(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세계화시대의 자본과 국가"
 - 제3주제 : 강수철(고려대, 경영학과 교수) "세계화시대의 자본과 노동"
 3. 종합토론 사회 : 김진철 (동국대 정외과 교수)
 - 제1주제 토론자 : 임현진(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 제2주제 토론자 : 김세균(서울대, 정치학과 교수)
 - 제3주제 토론자 : 이 건(동국대, 사회학과 교수)
- 일 시 : 98년 9월 11일 14:00~17:00
• 장 소 : 90주년기념문화관 덕암세미나실

사회과학연구원 정치경제연구부

실직자 자녀 아르바이트 신청 안내

IMF 관리체제하에 기업들의 부도사태로 많은 실직 또는 임금체불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실직자 자녀에게는 아르바이트를 우선 알선코자 하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 ◆ 접수기간 : 8월31일(월)~9월11일(금)
- ◆ 접수장소 : 취업과(본관 3층, ☎260-3054)
- ◆ 준비물 : 사진 1매

취업과

영상매체비평

- TV편 몰래 카메라

“몰래 카메라는 우리가 지켜야만 하는 사회적 약속을 깨는 것이다. 그 약속이란 님아나나나 바로 프라이버시의 존중이다.”



여름 동안에 여성들을 사투 긴장시키는 보도가 이어졌다. '투시 카메라'라고 하는 요상한 물건이 그 주인공이다. 여러 차례 TV에서 친절하게 시범을 보였듯이 이 카메라를 사용하면 수영복을 입은 사람의 앞몸을 볼 수 있다. 원래 그런 용도로 개발되지는 않았겠지만, 이 카메라는 완벽한 관음증의 도구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투시 카메라'만이 관음증의 도구인 것은 아니다. 모든 카메라가 사실 관음증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 '몰래 카메라'

가 그 좋은 예이다. 발에 기브스를 하고 그 끝에 카메라를 장치해서 여인의 치마 속을 찍는 사진은 이미 고전에 속한다. 여관이나 호텔 방에 몰래 카메라를 장치하고 찍은 비디오까지 시중에서 공공연히 판매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것들과 TV의 '몰래 카메라'는 과연 어느 정도나 다를 수 있을까? 처음 '몰래 카메라'가 방송되었을 때, 미국의 어떤 방송을 표절한 것이라는 시비가 잠깐 일기는 했지만, 사람들의 반응은 대체로 아주 재미있었다는 것이었다. 역시 흥신 사가 맛있고, 훔쳐보기가 재미있는 것일까? 이런 인기를 배경으로 몰래 카메라는 그후 특정 프로그램의 한 코너

를 넘어서 아주 폭넓게 사용되는 중요한 프로그램 제작기법의 하나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 그러나 사실 몰래 카메라는 우리가 지켜야만 하는 사회적 약속을 깨는 것이라는 점에서 중대한 부작용을 안고 있다. 그 약속이란 님아나나나나 바로 프라이버시의 존중이다. 프라이버시는 특히 요즘처럼 개인의 정보가 자신도 모르는 새 축적되고 유통되기 쉬운 상황에서 법에 의해 강력히 보호되어야만 하는 인간의 기본권이다. 이런 인식이 확산되면서 결국 모 방송국은 앞으로는 몰래 카메라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공언하기도 했다. 이런 변화가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몰

래 카메라는 여러 프로그램에서 정구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언론의 보도권이라는 점에서 보자면 몰래 카메라를 완전히 없애기는 사실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단지 재미를 위해서 몰래 카메라를 사용하는 것만은 근원적으로 재고해야만 한다. 최근에 탤스그룹 NRG가 몰래 카메라에 호되게 당하는 것을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 재미보다는 그들이 안쓰럽다는 생각과 제작진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기 않아도 엿보기가 유행하는 관음증의 시대이다. 몰래 카메라를 통해 TV가 이런 관음증을 더욱 조장하고 이용해서는 안되지 않을까? **홍성태** 문화과학 편집위원



한국문화 어디로 가는가?

강요되는 미국식 삶의 모델

'이기는 자만이 살아남는다' 경제논리속 사라지는 공동체 문화



국가와 국가간의 벽을 허문다는 '신자유주의'가 전세계 거대담론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는 김영삼 정권이 저질러는 무절제한 '세계화' 비리를 정리하지도 못하고 IMF라는 국가위기 상황을 고려할 때 신자유주의를 받아들이는 것이 타당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본 지면은 신자유주의의 경제질서가 갖는 '미국식 경제종속'이라는 본 의미를 살펴보고 경제와 더불어 나타날 문화적 종속에 대해 문화제국주의 관점에서 비판해 보고자 한다.

- 글 실는 순서는 다음과 같다.
1. 신자유주의 문화의 발생 배경과 정의
 2. 신자유주의 문화에 섭렵되는 세계 문화 속 한국문화
 3. 신자유주의 문화에 대한 올바른 제언과 대안

신자유주의문화 : 문명의 얼굴을 한 야만

신자유주의문화란 개념은 아직 확정적이지 않다. 왜냐하면 신자유주의 자체가 경제 영역에서의 개념인데다가, 무릇 대부분의 경우 어떤 문화적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데에는 그를 발생시키는 어떤 사회경제적 변화가 일정한 시간동안 사회적으로 축적된 뒤라야 하기 때문이다. 즉, 인간의 삶에서 생활방식과 그 의식의 변화가 일어나려면 경제적 토대에서의 변화가 구조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신자유주의문화란 우리 사회에서 현재 구축 중인 어떤 새로운 의식을 말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

지난 몇 년 전부터 우리 사회에서 일어난 의식상의 변화 가운데 뚜렷하게 관찰되는 것은, '우선 나부터 살고 봐야 한다'는 식의 개인주의와 경쟁의 논리이다. 이는 말할 것도 없이 90년대 중반부터 김영삼정권이 시도했던 신자유주의 정책에 따른 결과이다. 즉 '아래로부터 형성된' 것이라기 보다는 '위로부터 강요된' 것이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

김영삼 정부는 1994년 APEC 회의 참가 이후 '세계화'를 주창하면서, 미국, 영국, 일본 등 경제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공여정책으로 만든 신자유주의 정책을 모방했던 것이다. 서구에서는 80년대초반 심각한 경제위기에 몰려 그 원인을 전통적 케인즈주의에서 찾아 기존의 사회적 안정을 가능케 했던 사회복지 축소 또는 철폐하고 인간의 삶을 완전한 자유경쟁의 시장 질서로 내몰았는데 김영삼정부가 이를 기계적으로 도입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그 결과가 정경유착과 재벌경제, 수출정책이라는 한국경제의 기존 구조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은 오히려 등한시되고 경제의 위기는 고스란히 유지·심화될 뿐만 아니라 급기야는 사회 전체를 경제적 공포에 몰아넣고 사람들로 하여금 도덕과 양심, 인간애의 마지막 남은 여지마저 날려버리게 만들었다.

실제로, 94년 이후 우리 사회는 정권에서 벌이는 경쟁의 논리와 질서에 정신차릴 틈도 없이 내몰렸다고 하겠는데 이에따른 개인과 사회의 불안과 공포는 한순간에 우리 사회를 우울증 사회로 뒤바꿔버린 것이다. '시장의 실패'는 '사회주의의 실패'보다 더 먼저 지적되었음은 이미 상식화되었는데 신자유주의는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오늘을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분배정의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시장경제의 유지와 효율을 위해서도 국가의

개입은 불가피한데도 신자유주의는 국가개입을 범죄시하여 부익부빈익빈을 정당화·심화시키고 있어 결국 신자유주의는 인간을 문화적 존재에서 생존적 존재로 퇴보시키고 만다.

팽창하는 개인주의·냉소주의 문화

신자유주의문화는 결국 반(反)공동체주의이다. 왜냐하면 신자유주의는 항상 경쟁이데올로기를 동반하기 마련인데 이에따라 사회의 기초 공동체 단위들은 심각하게 훼손되고 붕괴의 위기에 직면하는 것이다. 단적인 예로 90년대 들어 급속하게 붕괴되는 '직장 공동체'를 들 수 있다.

하나의 실제조사에 따르면, 대우중공업에서 신자유주의 경영기법에 따라 부서별조직체계를 팀제체 식의 네트워크 형태로 바꾸고 성과급제와 같은 경쟁적 임금체제를 도입한 결과 노조가입률이 급격히 저하되고 직장의 일상적인 '동료문화'도 사라졌다고 한다. 대학 공동체도 이같은 경향은 뚜렷하다. 등록금문제 등 경제적인 문제를 제외한 각종 학생회 활동이 급속히 위축되고 취업을 위한 공부외에 진지한 학문 탐구의 분위기는 경제적 생존이라는 지상 최대의 가치(?) 앞에서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이는 이미 '인문학의 위기'나 '고시열풍'이니 하는 양상으로 나타났

다. 신자유주의는 모든 인간을 '경쟁에서 이기는 자만이 살아 남는다'는 시장경쟁의 논리 속에 몰아넣음으로써 이처럼 공동체 의식의 파괴는 물론, 학문의 위기, 정신의 위기, 문화의 위기를 불러오고 있는 것이다. 경제적 공포의 질서 속에서 경제적 '생존의 위기'라는 유령에 쫓겨 진리나 평등이나 양심이나 도덕이니 하는 인간의 모든 가치를 내팽개치고 있는 양상이다. 한스 피터 마틴과 하랄트 슈만이 최근 '세계화의 덫'에서 "서구자본주의가 자연파괴와 인간성 파괴에 이어 안정된 사회마저 파괴하고 있다"고 지적한 것이 이에 꼭 들어맞는 말이다.

경쟁에서의 승리와 '우선 나부터 살고 보자'는 식의 의식에 사로잡혀 인간이 때로는 눈물로 때로는 피로 간직하고 섬겨온 모든 가치들을 조롱하는 냉소주의의 팽창은, 우리가 결코 이르러서는 안될 최악의 경지에 이르고 말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신자유주의가 세계적으로 장광한다는 것 자체가 슬픈 일이다. 근대성의 한 중심논리인 '자유와 평등'이 프랑시스 민혁명으로부터 역사적 명제로 제기된 이후, 자본주의의 전개과정에서 '자유'를 기본원리와 최대가치로 삼는 '시장

의 질서가 인간에게 물질적 풍요를 줄 수는 있어도 '풍요의 평등'은 보장하지 못한다는 문제에 부딪히게 되고 이에따라 '자유와 평등의 조화'를 향한 인간의 노력이 풀기처럼 전개돼 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완전한 자유시장경쟁 질서로 돌아가자는 신자유주의는 정제 또는 담보될 수밖에 없다.

미국식 삶과 문화로의 획일화

문제는 이같은 신자유주의문화가 단순히 일국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주의권의 몰락이후 자본주의의 문화논리와 질서가 전지구화되는 측면의 문제라는 것이다. '세계화의 덫'의 저자들도 지적하고 있듯이 오늘날 신자유주의 문화의 확산은 세계화의 다른 얼굴일 뿐이다. 신자유주의 자체가 레이거노믹스 이후의 미국 경제논리이어서 신자유주의를 미국식 모델이라고 부르는데 이의가 없다.

그런데 신자유주의에 다른 미국의 사회가 과연 긍정적인가? 일례로,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는 교육예산보다도 감옥 예산이 더 많다고 한다. 사람을 사람답게 기르는 데 드는 비용보다도 범죄자를 격리하는데 드는 비용이 더 많다는 말이다. 이처럼 범죄와 마약 등 인간성의 고갈문제는 비단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었던지 신자유주의문화는 여기에 기름을 붓고 문제사회를 냉소적으로 정당화하는 것이라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더욱 큰 문제는 전세계적인 신자유주의문화의 팽창이, 경제적 공포와 개인주의 및 냉소주의라는 틀 외에도 화려한 소비문화라는 유인책에 의해 형성된다는 점이다. 공동체를 냉소하고 인간성의 가치를 냉소하고 경쟁적 삶의 승리만을 숭배하도록 하는 힘은 또한 화려한 소비문화를 보장한다는 것이다. 흔히 '20대 80의 사회'라는 세계화의 양상 즉, 경쟁에서 패배한 80%의 사람과는 달리 경쟁에서 승리한 20%의 사람에게서 부와 소비를 화려하게 누리는 신귀족의 삶이 보장된다는 신자유주의의 논리에 빠져드는 것이다.

결국, 신자유주의문화는 인간을 가장 혐오스러운 존재로 만들어 가고 있다. 이웃보다는 나, 진리와 진실보다는 경제적 이익을, 관용과 사랑보다는 경쟁과 승리를 숭배하도록 인간에게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화의 창궐은 오히려, 이제 인간 스스로가 자신에게 더욱 엄격하게 진리와 진실과 사랑과 이성을 요청해야 하는 시대에 가까워졌음을 의미한다.

송주성
시인·문학평론가
'포스트 모더니즘은 없다' 저자

자아인식

학교 안에서

출판기념회

97년 한총련 조국통일 위원장을 지내면서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사건구속영장이 발부된 채 수배생활을 하고 있는 분교유병문(불교 92)군이 '양수리에서'라는 시집을 출간한다.

이에 본교에서 출판기념회를 열 예정이다. 야간강좌 총학생회장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날 기념회에서는 권오현 민가협 공동의장의 축사와 책 증정, 시낭송 및 현재 조계사에서 수배해제를 요구하며 농성중인 유병문군과의 전화통화가 있을 것이다.

또한 행사의 일환으로 희망새, 꽃다지, 천리마 등의 문예공연도 준비중이다. 오는 12일 오후 5시 다화관 식당에서

미술학과 개강전

동양실습작전! 미술학과 학생들이 여름 방학동안 땀 흘려 완성한 한국화, 서양화, 불교미술, 조소 등 여러분야의 작품을 선보인다. **오늘부터 12일까지** 학술관 지하전시장에서

학교 밖에서

기을 굶판

터울림이 열린 번째 대동풍물굿판 '여영자 청청해방상생들래 98'을 벌인다. 환경, 여성, 민중, 노동이 제자리잡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마련된 것으로 이번 굶판은 노동자와 학생 풍물패 2백여명이 준비하며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국위원회, 노동자문화운동단체 대표자회의, 서울지역풍물단체협의회, 서울특별시가 후원한다. 오는 13일 늦은 3시 한양대학교 노천극장에서 문의 326-2207

경주 세계문화엑스포

'문화의 새 세계를 열거할 경주 문화엑스포에서 새 천년의 미소를 느껴보십시오' 백남준을 비롯한 세계적인 비디오 아티스트들의 멀티미디어를 볼 수 있는 새 천년의 미소관, 인위화합음악축제, 세계민속공연 등을 통해 온몸으로 문화의 신세계를 체험하고 세계문명관·풍물광장·꼭두극축제·우정의 집·아외조각전 등을 한자리에 모여 문명발상의 모습을 직접 경험해 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전야제는 경주역, 개막제는 전승의 마당, 폐막제는 백결 공연장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9월 11일부터 11월 10일까지 경주부문단지 일원에서

메아리

한편의 픽션

▲도대체 앞날을 예상할 수도 신뢰할 수도 없다. 현대자동차가 정리하고 문제로 노사간 대립이 심각할 땐, 정부가 직접 힘써 노사간 조공씩 양보를 얻어내기도 하고, 같은 정리하고 문제로 만도기계가 노사간 대립할 때는 기다렸다는 듯이 공권력을 투입하기도 한다. 제재와 보수언론의 질타(?)에 따른 궁여지책이었던지도, 현대자동차 사태해결에 대한 해외의 부정적인 시각이 한 몫 했는지도 모르겠다. 생존권 문제인

정리해고에 갈광질하는 정부에 더 이상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니 노동자가 더욱 스스로 살 '길'을 모색·강행하는지도. ▲예전부터 지배자의 위치에 서 있는 분들에게 문제를 만드는 재주는 있어도 해결하거나 해결할 마음은 자리잡지 못한 것 같다. 백성이 먹을 것이 없어 하루하루를 근근히 살아갈 때도 위정자들은 자리싸움이나 사리사욕에 더 열을 올리고, 살기 위해 바둥거리는 백성들에게 권력으로 내리 찍는다. 예전

청나라 말기, 외세와의 전쟁으로 국고가 거의 바닥난 상태에서 집권자인 서태후의 생일잔치는 화려함이 말할 수 없었다고 한다. 외세에 직접 맞서며 피를 흘렸던 이들은 결국 백성들이었으며 그들의 피를 담보로 위정자들은 자신들의 삶을 영위한다. ▲드라마 흥길동이 인기를 끌고 있다. 단순한 울도극이라는 이상적인 얘기가 아니라 살기위해 위정자에 맞서 싸워야했던 민중들의 삶과 애환이

드라마를 통해 드러나고 있다. 물론 작가가 만들어낸 허구의 이야기이지만, 요즘같이 픽션같은 세상 살아가는 서민들에게는 구별의 의미가 없는 것이다. 평상시엔 엑스트라를 요구하다가, 위기가 닥쳤을 때는 그 고통분담의 영화에 잠시 주인공 역할을 시키듯이, ▲영화에서 전체적인 구도를 정하고, 배우들과 스태프를 그 영화제작에 잘 배합 시키는 것은 감독의 역할이다. 그리고 감독이 그 역할을 소홀히 했을 때

직접적으로 영화에 미치는 악영향은 거의 전부라고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치명적이다. 잠시 픽션영화를 찍는다고 생각한다면, 그리고 우리는 악덕 제작자와 감독에 의해 원하지 않는 주인공을 맡았고, 그렇다면 그 보상이라도 제대로 받아야 한다. 잘못된 영화 탓을 주인공에게만 덮어씌우고 자신들의 역할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는 그들을 영화에서 쫓아버리고 싶은 심정이다. 최정식 편집장

독자들의 의견이 담긴 원고지 4~5매 분량의 글이나 사진, 시, 만화를 기다립니다. 채택된 분께는 소정의 교료를 드립니다.

TEL:2603491·2/(0561)7702057·8 FAX:2791270 PC ID:dgpress

소나기

대학구조조정



△조정만 하면 다나구요. △또 실업자 엄청 나오겠구만. △이젠 조정이란 말만 들어도 무섭다. △대학구조가 어때서? △조정을 하려면 제발 바로 좀 합시다. △무조건 자르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그냥 학부제 한다고 그래. △서울대 따라하기 또 시작되는구나. △각자 자기 대학에 맞는 구조조정을 했으면.

△여기는 서울대가 아니라 동국대예요. 그것도 '민족 경주캠퍼스'. △제발 우리과가 살아남길. △'언제 · 어디서 · 누가 · 무엇을 · 어떻게 · 왜'를 분명히 밝힐 것. △아무렇게나 문치지 말아 주세요. △구조조정안 좀 봅시다. △확실한 대안을 두고 조정을 해도 해야죠. △대학 건물구조나 바꾸는 게 어떨까? △구조조정 혼자하지 말고 같이 좀 합시다. △내부구조부터 바뀌어야 할텐데. △구조조정이 무조건 합쳐야 한다는 말은 아니잖아요. △1 더하기 1은 1. 이젠 분명 틀린 답입니다. 결국 전부 하나로 만들어 다스리겠다는 뜻이죠. △서울대가 뛰어난 동국대도 된다(?) △이제는 무조건 다 구조조정ینه 결사반대! 대학 본연의 모습을 찾아 감시다. △근로민중교육기회 확대를 외치더니 야간강좌 폐지라니... 학교당국 각성하라! 대학의 구조조정은 학교의 주인인 우리의 이해와 요구가 담겨야 한다. △학교측은 맘대로 학교의 이익을 우선으로 구조조정해서 돈벌어 다 어디다 쓸래? △학제개편은 학생들의 힘과 지혜로.

도움을 청합니다
본교 국문과 출신 김정훈(대학원 국문과 1학기)이 해외자원봉사 도중 사고를 당해 전신마비 상태에 있습니다. 평소 고향을 하며 열심히 살아온 김정훈 군에게 따뜻한 손길을 바랍니다.
모금방법 : 조흥은행 계좌
313-04-557663 김혜숙
* 기타 문의사항은 국어교육과 사무실 (260-3394)

참사람 인성교육을 다녀와

수련과 수양의 귀한 경험

수련과 수양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참사람 인성교육을 마치면서 느낄 수 있었던 것은 자기개발 방식의 차이점이다. 전자가 교육자와 피교육자와의 상호의사소통으로 자기개발이 이루어진다면, 후자는 이와는 별도로 자기와 자기와의 의사소통을 통해 자기개발을 이룬다고 대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교육생 모두가 한 가지처럼 같이 느끼고 배웠던 5박 6일간의 교육에서 우리는 이러한 수련과 수양의 경험을 할 수 있었다.

참사람 인성교육은 크게 신입사원 연수와 같은 프로그램과 인성적 측면을 강조한 내용으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그 중에서 산업장사를 통한 기업 경영에 대한 강의는 경영과 마케팅, 그리고 조직관리 등의 실질적인 사안들을 주 내용으로 했고, 후자는 본교 교수님들의 강의 및 성격 분석 등 전문 강사들의 참여가 주를 이루었다. 더불어 진행과 관련된 토의 시간에는 많은 건의와 답변이 오갔고, 방과

중국 기행기

무질서 속의 만만디 질서

지난 여름 나는 6박7일간 학생지도자 해외연수를 다녀왔다. 외국에 처음 나가 보는 나는 처음부터 많이 실례였다. 1시간 40분후 북경공항에 도착했을 때 '이곳이 나오는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살고 있는 곳이구나'라는 생각으로 무척 기뻐했다.

처음 북경에서는 중국 민중들의 투쟁의 현장. 역사의 현장인 천안문 광장과 2박 3일 동안 구경을 해야 할 정도로 웅장한 자금성, 그것의 두배가 되는 넓이의 땅을 파서 인공호수를 만들고 그 흙으로 산을 옮긴 황제의 파서지 이화원과 그리고 달에서도 눈으로 보인다는 유일한 인조물 만리장성을 둘러 보았다. 처음 나는 유적들의 규모에 입을 다물 수가 없었지만 그 웅장한 속에 숨어 있는 민중들의 땅과 피가 눈에 밟혔고, 우리나라를 종속국으로 여겼던 중국황제의 거처라는 생각을 하니 멋있어 보이지 만은 않았다.

북경에서의 일정을 마친 후 우리 일행은 연변으로 향했다. 거기에서는 연변대학 1학년 조선족 동포들을 만났다. 그들은 남한 사람, 북한 사람을 나누어 구분하지 않았다. 그저 한 동포로 여길 뿐이다. 그것은 지금까지 편협하기만 했던 나의 인식의 틀을 깨주었다. 비록 지금 우리는 북한 사람들과 이데올로기적 대립을 하고 있지만 언젠가 하나로 통쳐 응비할 한 동포로 감싸안아야겠다는 생각이

후에는 숙소에서 교육생들끼리 따로 모여 수업 내용을 서로 비판·토론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렇게 아쉬운 점들을 지적해 나가면서 우리 개개인이 배울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개인을 먼저 생각하기 보다는 상대방에게 더 큰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직접적인 교훈이었다. 실제로 여러번의 강의 시간에 걸쳐 할애된 그룹별 토론 시간에서 자기 목소리를 높이고 상대방의 이야기에 더 귀를 기울이는 것이 옳은 일이라는 사실을 실감하게 되었다. 더 나아가 이러한 입장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개인의 무기는 '자기 개발'과 함께 타인을 배려할 줄 아는 '섬속한 인격'이라는 것을 쉽게 공감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교육생들의 공감대는 바로 5박 6일의 교육에 성실히 참여하고 마지막 소감문을 작성하면서 느낄 수 있는 수양의 결과였다. 즉, 수련을 통한 수양으로의 접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었다. 조용철(사과대 경찰행정학과)

을 갖게 되었다. 그런데 최근 조선족 사회에서 남한 사람들에 대한 인상이 부쩍 나빠지고 있다. 조선족 처녀 사기 결혼 등 아직 자본주의 경제논리에 익숙치 못한 조선족을 상대로 사기를 치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다. 순간 부끄럼이 얼굴을 덮었다.

다음날 우리는 민족의 영산이라는 백두산을 향했다. 일년에 천지를 볼 수 있는 날은 며칠 되지 않는다고 하며 그것도 하늘이 열어 주어야 천지를 볼 수 있다고 한다. 부푼 가슴을 안고 오르 백두산은 고맙게도 그 멋진 천지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 어떤 인조물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다. 그저 와!라고 감탄 할 수밖에.

비록 짧은 연수일정이었지만 그 속에서 또 다른 중국의 생활을 엿볼 수 있었다. 자전거와 자동차가 어지럽게 지나다니는 도로, 하지만 위험해 보이지 않았다. 무질서 속의 질서라고나 할까? 또한 경적을 울리지 않는 모습 속에서 그들의 천천히 기질, 만만디 정신을 보았다.

이제는 남들에게 중국이란 이런 곳이라는 말을 어설피지만 자랑스레 할 수 있게 되어 너무나 기쁘다. 김기훈(이과대 물리학과)

오늘의 미술

이원동 (미술 83졸 · 석경서화원 대표)

“학창시절 배인 철학 붓끝에 실어”

그는 지독한 사랑을 하고 있다. 작품과 모교인 동대와 후배들.

그를 찾아간 곳은 다름아닌 잡자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만의 공간에서만 생활한다는 석경서화원이다. 작업실 안으로 보이는 넓은 방에는 인기척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책에 빠져있는 학생이 있다. 1백 60 정도의 깔끔하고 단아한 책구의 그 학생이 바로 미술계에 입문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탐내고픈 대한민국 서예대전에서 대상을 수상한 주인공이다.

“그때 우리 후배님은 몇학년이세요?” 그가 연 첫발문이다. “지금까지 수없이 취재를 해간 탓에 딱딱한 기자보다는 따뜻한 모교 후배로 여기고 싶어요.”

그가 이번에 수상한 작품은 ‘竹’(사군자부분)으로 중국시인 여조겸의 시조를 소재로 삼았다. 문인화는 대부분이 그림에 따른 설명이 덧붙는다고 한

다.

졸업후 10년이 넘게 줄곧 작품에만 전념했다는 것에 걸맞게 본 대회에서 특선, 입선다수, 매일서예대전 대상 등 다수의 대회 수상을 했으며, 현재 그가 맡고 있는 직위나 직책은 종이 한 페이지를 채우고도 모자란다.

“문인화는 사색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자기만의 철학을 가지고 사물의 특징을 직관적이고 순간적인 영감으로 표현하는 일이라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며 바쁜 와중에도 학교시절에 몸매 뺀 불교적 정서로 매일 아침 백팔배를 한다고 한다.

“산을 오르내리며 새소리 · 물소리 · 바람소리를 들려준 모교의 지리적 · 환경적인 장점이 나만의 철학을 정리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며 현재의 그를 얘기한다.

“사회 ·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못했지만 친구들과 지역명소를 찾아다니



며 때로는 막걸리에 노래를 듣고, 때로는 지성인으로서의 고뇌를 대학시절의 낙으로 삼았죠” 여느 학생과 다를없이 80년대를 보냈으며 “학교시절요, 학생회 재건 당시 총학생회 종교부장을 비롯해 불교학생회, 고전극연구회... 또 현재 대내외적으로 꽤 알려진 동북회(서예동아리)가 본교 한외학과 신홍목 교수와 만든 작품(?)이기도 합니다”라며 남달랐던 학창생활을 얘기한다.

이렇게 10여분 가량의 일방적인 학창시절 얘기가 작품에 대한 설명을 압도했다.

나이별로 지역별로 천차만별인 서화원의 제자들 앞에서 지금도 그는 곳곳이 붓을 세우고 서 있다.

한치의 숨소리도 들리지 않는 고요함속에서, 소나무를 그려내고 있는 그만의 공간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정희정 기자

담배 모두의 공유물아니다 흡연장소 자기 절제해야

한 시민단체의 거리운동의 포어를 보면 이렇다. “당신은 담배를 태우고 담배는 당신을 태운다.” 담배의 무익함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지만, 그 끝에 담기는 힘은 감당하기 힘들다. 나 역시 하루 한 갑 이상의 담배를 피우고 있는 애연가다.

특히 우리나라는 성인 흡연률이 70%로 세계 최고를 자랑하고 있으며, 담배에 들어있는 4백여종의 화학물질 중 30여 가지가 강한 발암 물질로 전체 암발생의 30~40%가 담배에 의한 것이라고 한다. 또 담배로 인한 질환에 의하여 1년에 2만5천명 가까운 사람들이 사망한다고 하니, 틀림없이 사투한 인위의 결과를 가지고 있는 것이 담배다.

애연가인 내가 금연가를 부를려는 것은 아니고, 학교라는 공간에서 껌연의 공간을 말하고 싶다. 과연 어디가 금연장소이고, 흡연장소인지 구별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는 듯이 보이기 때문이다. 학교는 담합의 터가 아니고 열림의 터다. 구속이 아니고 자율과 자유의 터다. 하지만 이런 미덕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 외적인 자기절제가 필요할 곳이기도 하다.

담배를 피울 수 있는 장소는 학교의 어느 곳이나 가능하지만, 담배가 모든 사람의 공유물은 아니라는 생각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장소 구애가 없으면 자기절제의 부족이고 지나친 이기심이 아닌가. 어디서나 자기의 의지대로 살아간다면 다수의 역할은 이미 무너지는 것이고, 지속적인 힘을 유지하기는 힘들다. 담배로 그 힘이 다한다면 사회인으로서의 동대인은 상상하기가 어렵다. 하지만 언

제나 가장 중요한 것은 작은 것에서 모든 힘이 벌어진다는 것을 무시할 수 없음이다.

직접적인 학문의 마당인 강의실 복도나, 도서관 등에서 담배를 피워 무는 모습은 동대인의 자존심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며, 불교 종립학교의 청정에서 한 걸음을 물러서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담배로 이룩되는 공간은 흡연구역이고 이외의 공간은 자기절제를 통하여 금연구역으로 이해할 수 있는 동대인의 역할을 기대한다.

최기범(불교문화대 불교학부)

알림

1252호 재입학 관련 투고 글의 필자를 김보균에서 김형수로 바로 잡습니다.



동악광장

목격글

축하합니다

△서금연! 너의 23번째 생일을 축하해. 비범현숙! 이사를 축하한다. -사과계열 97 배들 △귀영나니 생일 축하! -97영문 추종자들 △이종대 선생님 교수 취임 축하드려요. -이부영문 꽃순이들

△터프가이 노호(사과계열 97)오빠의 생일을 축하드려요. △마당의 등직한 선전부장 금희 언니 생일 축하해요. -98 마당 2기 후배들 △환경미화에서 일등한 아리랑 여러분. 조오켰다!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복지됐습니다. 그동안 걱정해 주시고 서명운동에 동참해 주신 학우 여러분 감사합니다. -황인규, 최동현 △불사정통 개강총회와 개강파티를 준비

하신 분들 수고하셨습니다. -학생회장 △보살사상연구회! 일주일에 걸친 새단장을 무사히 끝낸 모든 범우들께 고맙다는 말을 남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개강맞이 한마당을 치르느라 고생하신 동아리연합회의 모든 분들 수고 많았습니다. -숙

열심히 합시다

△잘 생각뿐만 병철 아라바이트 재밌게 하라. 언제나 나 생각 하마. -미평핑이고픈 인옥 △반도체 98년 2학기 열심히 생활합니다. -반도체 98 학교 맞은 학우 일동 △REDS인이어! 진보를 향한 힘찬 발걸음을!!!

그리고...

△고재모기 오빠 힘내세요. -중문 98 △무풍의 만길 오빠! 무풍은 걱정하지 말고 군대 잘 다녀 오세요. -정기맨 △윤화아! 생일 축하한다. -어여쁜 기획 △진희야 늦었지만 생일 축하해. 절대 잊

굴 좀 봅시다. △동일이 군대 잘 다녀와라. -이더 △마당 98학번 동기남들 사랑합니다. sea △자연과학연구회 명진오빠 군대 잘 다녀오세요. -lonia △손짓사랑회가 9월7일(월) 불상앞에서 공연있습니다. 많이 와주세요. -신입부원

열심히 합시다

△은방골 지역아 015-8338-9892. (02)264-7989 -철주

은방골

축하합니다

△정 · 산 성육이와 지희의 커울 탄생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앞으로 잘 되길 바래 꼭!(석장에서 업고 다니지 말 것)

△배아픈 98 △학복위 정책 국장님 생일을 축하합니다. -정기맨 △윤화아! 생일 축하한다. -어여쁜 기획 △진희야 늦었지만 생일 축하해. 절대 잊

은 게 아니야, 잠시 놓쳤을 뿐. 미안하고 우리 잘 살자. -327 친구 △애신아! 늦었지만 생일 축하한다. 진짜 루. -너의 친구 환과 용이 △성식아! 과대 당선 축하한다. 앞으로 계속 발전하길 바란다. -추 △사랑하는 남자친구 '릴라'의 재대를 축하하며. -꽃잎

수고하셨습니다

△야간강좌 학우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신 김영재 학장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일천이간학우 △한문학과 2학기때도 선배님을 수고해 주세요. 지난 학기 무지 수고하셨습니다. -비번 98

알립니다

△서울 전국대학생 마당놀이 경연대회에서 불휘 개인상 타다. -불휘 파이팅 △컴퓨터 동아리인 DUCO가 신입회원을 모집합니다. 같이 관심있는 분들은 빨리 학생회관 3층으로 오세요. -지영

열심히 합시다

△TIME 회원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일 어섭시다. TIME은 영원하리. -용과신환 △4학년 선배님을 취업 파이팅! 힘내세요. -크리스탈 △호연아! 우리 이번학기 진짜루 열심히 하자. -B+이

그리고...

△일부러 멀어지려 함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이별이 싫어 사랑을 포기하는 그 힘들음을 말이에요. -7843 △재영이 오빠야, 군대 잘가라구. -소연 △켄타쿠 군대 잘 갔다와. -짱 △목격글 친구 철주야! 오랜만이지? 동리 문학회의 정신과 실력을 한껏 발휘하길 바래. -지영

다양한 학생 · 보리수 식당 차림표

Table with 2 columns: Day (월, 화, 수, 목, 금) and Menu items (e.g., 치킨개스(1300), 짜장밥(1200), 비빔밥(2000), 생선개스(2500), 소고기볶음밥(3000), 소고기버섯개(1300), 참치볶음밥(2000), 탕수육백반(2500), 돈까스(1500), 콩나물밥(1200), 녹치볶음(2500), 새우볶음밥(2000), 비빔밥(1300), 북어찜백반(1300), 제육볶음(2500), 양송이볶음밥(2000), 하이라이스(1200), 오징어채볶음(1300), 불고기 백반(3000), 돈까스(2500)).

동국관 교직원 · 학생식당 차림표

Table with 2 columns: Day (월, 화, 수, 목, 금) and Menu items (e.g., 냄비오징어(2800), 제육볶음(3000), 삼선탕수(1500), 소고기버섯개(1300), 동대찌개(2800), 영양술밥(3000), 설렁탕(1300), 소고기 아재밥(1300), 소금국(3200), 오무라이스(3000), 회덮밥(1300), 튀김덮밥(1200), 떡만두국(2800), 탕수육백반(3000), 감자탕(1500), 헬 볶음밥(1300), 추이탕(3400), 버섯볶음(3000), 연두부백반(1200), 오징어구이(1300)).